

지 역 연 구
캄 보 디 아
- ODA 공여를 중심으로 -

김 광 연

1993.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머 리 말

한국과 캄보디아는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화로 공식·비공식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최근 캄보디아 분쟁해결을 위한 동국의 국내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비공식적인 교류형태로 간간히 관계를 유지시켜 오고 있다. 특히 1993년 총선이후 계파간 연립정부를 구성한 캄보디아는 극심한 경제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시장경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의 관계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정상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캄보디아의 현실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분쟁으로 인해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심각한 물자난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부재, 기술노동력의 절대부족, 외채의 누증등 여러 경제적 압박요인이 누적되어 있어 경제의 복원 및 재건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장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이러한 원조노력은 여러 국제원조기구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캄보디아의 안정적 발전은 인도차이나의 평화정착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은 분쟁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인도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라도 캄보디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지원하고 친북한 성향으로 인해 소원하였던 양국민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대캄보디아 경제협력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면에서도 캄보디아가 벼농사 위주의 전통적 농업국가이면서 기초산업 및 영농분야의 기술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협력대상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의 열악한 협력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조를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제기구 또는 타선진 공여국등과의 긴밀한 사전협조와 조율을 통한 거

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 협력단 연구실의 김광연 연구원이 국내외 기출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자료의 부족, 특히 통계자료의 미비등으로 인해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으나 동보고서가 한·캄보디아의 협력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수록내용은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년 12월

연구조사국장

목 차

I. 일반개황	5
1. 자연환경	5
2. 인구 및 인종	8
3. 사회환경	10
II. 역 사	22
1. 개 요	22
2. 고 대 사	23
3. 근대사 이후	26
III. 정치 · 행정 · 외교 · 군사 · 언론	43
1. 주요 정치 · 행정기구	43
2. 파리회담 이후의 정치구조	45
3. 외 교	48
4. 군 사	50
5. 언 론	50
IV. 경제현황	52
1. 독립 이후의 경제발전과정	52
2. 최근 경제상황	58
3. 자원현황	63
V. 부문별현황	66
1. 농림수산업	66

2. 산 업	73
3. 수송 · 통신	76
4. 에 너 지	80
VI. 현안과제	82
1. 경제개혁정책	82
2. 부문별 재건수요	85
VII. 개발원조현황	92
1.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적 논의	92
2. 원조방향	93
3. 원조실적(총괄)	95
4. 국별 원조현황	96
VIII. 한 · 캄보디아 협력방향	102
1. 교류현황	102
2. 향후 협력방향	103

표 목 차

〈표 I - 1〉 종류별 토지면적	8
〈표 I - 2〉 연도별 인구통계	9
〈표 I - 3〉 민주 캄푸치아의 학교 · 학생 및 교사현황	14
〈표 I - 4〉 출생율 및 사망율	16
〈표 II - 1〉 주요 정치연감	40
〈표 III - 1〉 주요 정치인물 및 직위(1992년초)	48
〈표 IV - 1〉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추이(1986~91)	60
〈표 IV - 2〉 소비자물가와 환율변동추이(1988~92)	60
〈표 IV - 3〉 무역 및 대외채무현황(1988~92)	61
〈표 IV - 4〉 주요 무역대상국	62
〈표 IV - 5〉 부문별 고용현황	65
〈표 V - 1〉 연도별 쌀 생산량(1986~91)	67
〈표 V - 2〉 주요 식량작물 생산현황	67
〈표 V - 3〉 연도별 고무생산현황	68
〈표 V - 4〉 연도별 주요 가축의 수(1987~89)	68
〈표 V - 5〉 주요 축산가공품 현황(1987~89)	69
〈표 V - 6〉 연도별 원목생산량	71
〈표 V - 7〉 1992년도 원목수출현황	72
〈표 V - 8〉 어획량(1984~86)	73
〈표 V - 9〉 1988년도 제조업 생산실적	75
〈표 V - 10〉 제조품목별 생산량(1970년대 초반)	76
〈표 V - 11〉 자동차보유현황(1971~73)	77
〈표 V - 12〉 1991년도 에너지현황	81
〈표 VI - 1〉 제2차 5개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드래프트)	84

〈표 VII-1〉 대캄보디아 원조실적 총괄(1987~91)	96
〈표 VII-2〉 일본의 대캄보디아 경제협력실적(1988~91)	99
〈표 VII-3〉 일본의 대캄보디아 분야별 기술협력 누계실적	100
〈표 VIII-1〉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교역현황	102
〈표 VIII-2〉 한·캄보디아 교류일지	103
〈표 VIII-3〉 난민수송 및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106
〈표 VIII-4〉 농림·축산분야 협력방안	107
〈표 VIII-5〉 산업분야 협력방안	108
〈표 VIII-6〉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분야 협력방안	109
〈표 VIII-7〉 교육·보건분야 협력방안	110
〈표 VIII-8〉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111
〈표 VIII-9〉 단계별 협력방안	112

그 립 목 차

〔그림 II-1〕 독립이후부터 파리회담 이전까지의 정부형태의 변화 ...	39
〔그림 III-1〕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정부구조(1987)	46
〔그림 III-2〕 파리회담이후의 정치구조	47

I. 일 반 개 황

1. 자연환경

가. 기 후

캄보디아의 기후는 동남아시아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열대우기와 열대건기가 반복되는 몬순계절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름에는 습한 남서풍이 인도양 건너 육지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어와 건냉한 기후로 바뀐다. 이러한 몬순기후로 인해 캄보디아는 5월 중순부터 9, 10월까지 우기가 형성되고 11월부터 3월까지의 건냉기에 접어든다.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남부지방에서는 건기가 2개월, 그외 타지역에서는 4개월간 계속되는데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 매우 짧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습도 차이가 큰 반면 기온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히 Tonle Sap 분지 주변으로는 기온의 변화가 거의없어 연평균 2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최고 기온이 약 28℃, 최저가 약 22℃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건기를 앞두고 무더울 때(4월)는 최고기온이 32℃이상 올라가기도 하며 반대로 1월은 가장 추운달이지만 최저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캄보디아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약 100~150cm에 달하고 주로 남동쪽 지방이 타지방보다 강우량이 많은 편이다. Tonle Sap분지와 Mekong 저지대의 우기(4월~9월)동안 강우량은 약 130~190cm로 매년 변화의 폭이 심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강우량도 많아진다. 남서쪽 해안가를 따라 펼쳐지는 산악지방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몬순계절풍이 해안으로 불어오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이 지역의 강우량은 연간 250~500cm에 달하나 이중 대부분이 바닷쪽으로 흘러들고 분지로 흘러나가는 강으로의 유입이 별로 없어 홍수의 위험요소로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기적으로 베트남 해안을 강타하는 태풍도 캄보디아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일년내내 밤시간 동안은 습도가 매우 높아 보통 90%에 이르는 반면 낮시간은 건기가 약 50%, 우기가 약 60% 정도를 나타낸다.

나. 지 형

캄보디아 토지의 약 75%는 Tonle Sap분지와 Mekong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Tonle Sap분지의 남동쪽으로 베트남과 남지나해를 잇는 Mekong 삼각주가 펼쳐있다. 또한 이 지역은 남서쪽으로는 Cardamom과 Elephant산맥, 북쪽으로는 Dangrek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 및 동부지방의 고지대는 베트남 남부의 Central Highland와 합쳐진다. Tonle Sap분지와 Mekong저지대는 대부분 해발고도 100m이하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대가 높을수록 지형이 험하고 거칠어진다. 남서 Cardamom 산맥과 Elephant 산맥은 각기 해발고도 1,500m 이상 및 500~1000m로 서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맥너머 서쪽 태국만을 향하고 있는 작은 평야가 바로 Kampong Sam만이다. 이 지역은 1960년대 수도지역으로부터 도로와 철도가 개통되고 Kampong Sam 항구가 개항하기 전까지 만해도 고립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북쪽의 Dangrek 산맥은 해발고도 약 500m정도로 남쪽을 향해 단층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층애를 흐르는 하천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양국간의 교통수단으로는 Dangrek 산맥을 통하는 주도로와 몇 개의 지방도로들이 캄보디아와 태국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양국 사이에 가로 놓인 단층애가 수송 및 통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Dangrek 서부지방과 Cardamom 북부지방을 가르는 Tongle Sap분지는 태국의 저지대로 합쳐지면서 방콕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잇는 Mekong계곡은 Dangrek의 동부와 북동부 고원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Tonle Sap분지가 Mekong 삼각주와 이어져 베트남까지 뻗음으로써 양국간의 국토와 하천을 잇고 있다.

다. 수로

캄보디아를 흐르는 대부분이 강과 하천은 Tonle Sap이나 Mekong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Cardamon 산맥과 Elephant 산맥은 하천의 흐름을 나누는 분계선의 역할을 하는데 산맥 동쪽의 강들이 Tonle Sap으로 흐르는 반면 서쪽의 강들은 태국만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한편 수도 프놈펜에는 네개의 주요하천이 합류하는데 이 지점을 Chattomukh(Four Faces)라고 칭한다. Chattomukh에는 북동부로부터 Mekong강이, 북서부로부터는 Tonle Sap의 물줄기가 흘러들었다가 다시 Mekong강과 Basak 강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평행한 하천을 형성하여 각기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삼각주지대를 지나 남지나해에 다다른다.

Tonle Sap은 계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즉 우기가 끝나가는 9~10월경 Mekong강은 우기동안 형성된 강우량을 견디지 못해 북쪽으로 Tonle Sap을 향해 범람하게 되는데 이때 호수의 크기는 평시 2,590km²에서 무려 24,605km²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됨으로써 Tonle Sap 주변의 토지에는 많은 침전물이 쌓이고 건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늪지대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1980년대 중반까지 종류별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I -1〉 종류별 토지면적

(단위 : 1000ha)

토 지 종 류	1980	1985
경작지/곡물	3,046	3,056
관개토지	89	90
비관개토지	2,957	2,966
초원지대	580	580
숲지대	13,372	13,372
기타(도시/늪지대)	654	644

자료 : Russell R. Ross, Cambodia : a Country Study(Library of Congress, 1987)

2. 인구 및 인종

가. 인종 및 인구현황

캄보디아에는 크메르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36종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뚜렷한 소수민족으로는 Cham, 베트남, 중국계 등이 있다. 이들 각 민족은 특성에 따라 언어, 종교 생활습성들을 달리하나 크메르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다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인구는 약 8.8백만으로 인구분포면에서는 2/3이상이 Mekong강과 Tonle Sap 호수를 끼고 있는 Central Plain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과 성별면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분쟁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5세 이하의 인구가 총인구의 약 50%, 여성이 성인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1990년도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다소 상승추세에 있으며 유아 사망율이 천명당 127, 평균수명이 남자 47, 여자 50으로 이처럼 낮은 것은 5세이전의 사망율(천명당 193)이 높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

보건측면에서는 인구의 53%만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인구의 12%, 도시인구의 20%만이 위생처리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연도별 인구통계

(단위 : 백만명)

연 도	'87	'88	'89	'90	'91	'92
인 구	7.4	7.6	7.8	8.0	8.3	8.8

자료 : EIU World Outlook, 1993

나. 이주 · 국외탈출

1975년 4월 크메르루즈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대적인 강제 이주정책으로 인해 수도 프놈펜 인구의 반이상이 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처형 또는 환경적 어려움을 못이겨 죽음을 당하였다. 특히 Cham, 베트남, 중국계등 소수민족의 이주민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이 와중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태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내 베트남계 이주민들은 1969년 당시 약 25만내지 30만에 이르렀다가 1970년 강제 송환과 크메르루즈 집권당시의 학살로 인해 1984년에는 약 5만6천명으로 줄었으나 1988년 일부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다시 전쟁전의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같은 베트남 이민의 증가는 전체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크메르루즈 집권기간 동안 약 5만명이 태국으로, 약 15만명이 베트남으로 탈출하였으며 1978년말 크메르루즈 정권이 흔들리면서 탈출의 규모는 더욱 늘어 1979년부터 1981년 동안에만 약 63만명이 국외로 이동하였

다. 이듬해 이들중 20만 8천명이 주변국외의 국가들에 이주·정착하였는데 미국이 13만 6천, 프랑스가 3만2천,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만3천명 등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1987년말 현재 약 26만 5천명이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설치된 9개의 캠프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중 태국군 통제하에 있는 1개의 캠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크메르 반정부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다.

3. 사회환경

가. 종 교

캄보디아의 종교는 전국민의 약 90%를 차지하는 크메르족 대부분이 신도로 있는 불교가 대표적이며 Cham족을 중심으로한 이슬람교가 소수종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는 타불교와 아무런 공식관계가 없으며 또한 승려의 임명권도 국왕 또는 집권자에게 있어 1970년 시아누크공이 실권하기 전까지는 국왕에 의해서 임명되어 왔다. 한편 캄보디아의 불교는 Mohanikay계파와 Thommayut계파로 나누어지는데 90%이상의 승려들이 전자에 속하는 반면 후자는 캄보디아 지배계급에 의해 도입된 종교로서 규모에 비해 특권이 강하며 주로 수도 Phnom Peh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각 계파는 11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7등급 이하를 Thananukram, 8등급 이상의 상층계급을 Rajagana라고 칭하며 승려의 수는 각 지방 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50년대말 캄보디아의 승려수는 인구 500만명중 10만에 이르렀으며 이같이 승려의 수가 많았던 것은 승려가 되고 그만두는 것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용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중 대부분은 평생 승려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며 특히 젊은 승려들은 1년안에 사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승려들에게는 다섯가지의 금기사항이 있는데 첫째, 정오

이후에 식사를 금하는 것, 둘째 노래·춤·영화·TV같은 오락을 접하지 않는 것, 셋째 치장하지 않는 것, 넷째 사치스런 침대의 사용을 금하는것, 다섯째 돈을 만지지 않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승려는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없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종교적 관습은 상당부분 변화되어 1980년대에 와서는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PRK)정권에 승려가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불교는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에 여러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 승려들은 결혼, 장례식 등 마을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여 축복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전통적 크메르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정신과의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점성가로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신도들에게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캄보디아 남자성인들은 승려들의 가르침에 의해 글을 깨우쳤다. 이처럼 불교는 크메르 문화와 가치관의 변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우익세력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로인해 크메르루즈의 불교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해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서 있는 동안 승려들은 사찰에서 쫓겨나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무려 5만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침공이후 불교의 위상은 크메르루즈 정권이전의 상태로 돌아와 1981년 현재 전국 740개의 사찰에 4,930명의 승려가 수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0년대 중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수치상의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불교의 활동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해 사찰의 건립, 승려의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국가적 지원도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캄보디아인의 생활과 사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때로는 그 영향이 초자연적인 관습이나 의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깊이를 반영하여 1989년 캄보디아는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였다.

소수종교로서 가장 두드러진 종교는 이슬람교로서 주로 Cham족과 Malay족들이 신도로 있는데 1975년 통계에 의하면 약 15만내지 20만의 인구가 이슬람교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 역시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선 동안 132개의 사찰이 파괴되고 성직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세력이 많이 약해졌으며 1980년대말에 이르러서도 이전처럼 활발한 종교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교육제도

캄보디아의 전통적 교육은 불교를 통해서 승려의 가르침을 받는 제도로서 불교의 역사와 교리가 주요 교육내용이었으며 타 과목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공공교육제도와 더불어 여러 기능의 사설 교육기관들도 탄생하게 되었다. 사설 교육기관들은 주로 특정인종이나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와 공공 교육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도심지의 특권층을 위한 특수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의 소멸되었다.

공공교육제도는 1975년 이전까지는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각각 3년기간의 2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Primary)교육, 4년 과정 및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등(Secondary)교육, 고등(Higher)교육, 그리고 전문(Specialized)교육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4년간의 기초교육(Primary, Level I), 3년간의 저급중등교육(Lower Secondary, Level II), 3년간의 고급중등교육(Higher Secondary, Level III)과정을 포함한 총 10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형성되었다. 고등교육 과정은 초·중등 과정만큼 보편화되지 못하여 공무원 교육 또는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한 소수의 대학전문과정만이 있었으며 이들 학생중 일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한편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섰던 1975~79년 기간중 문화와 교육에 대

한 대대적인 탄압정책이 자행되어 캄보디아의 교육은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학교가 폐쇄되고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지식인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되기까지 하였는데 실제로 1970년대초 2만여명에 달했던 교사의 수가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한 10년후에는 5천명에 불과하였다. 소련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725명의 대학강사중 50명, 2,300명의 중등교사중 270명, 21,311명의 초등교사중 2,717명만이 생존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 당시 세대들은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장하여 문맹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PRK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에 대한 복원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나 물자 부족으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학교 건물들이 부서진 채로 난립하고 있는가 하면 교과과정이나 교사의 질적인 면도 매우 저조하고 그 숫자 또한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 타개도국에 비해 캄보디아의 교육제도의 강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캄보디아가 그동안 기초교육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기초교육 기관이 일부 북동지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크메르루즈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교육재건에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 4,500개의 초급학교, 400개의 저급중등학교, 61개의 고급중등학교를 복원하였으며 1991년 현재 각각 130만, 25만, 4만5천명의 학생과 4만, 1만2천, 1천5백명의 교사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초급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률도 전국 80%중 수도권이 90%, 지방이 70%, 기타 오지에서는 30%에도 못미쳐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기관에는 약 23,3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주로 교사나 의료관계 종사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 각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직업·기술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고급교육 과정들이 아직은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수준은 수치상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1년 현재 캄보디아 성인중 문맹인의 수는 약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3〉 민주캄푸치아의 학교·학생 및 교사현황

(단위 : 명)

구 분	1979~80	1980~81	1981~82	1982~84
Level I (1~4학년)				
학 교	5,290	4,334	3,521	3,005
학 생	947,317	1,328,053	1,508,985	1,542,825
교 사	21,605	30,316	37,000	33,479
Level II (5~7학년)				
학 교	14	62	108	200
학 생	5,104	17,331	39,434	146,865
교 사	206	671	1,600*	4,329
Level III (8~10학년)				
학 교	1	2	5	13
학 생	301	555	1,521	6,969
교 사	20	28	78 ¹⁾	277

주 : 1) 계획인원

자료 : Rusell R. Ross, Cambodia: A Country Study (Library of Congress, 1987)

다. 공중보건

캄보디아 지방의 보건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급수가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데 지방에서는 강이나 하천물을 음료수, 요리, 목욕, 세탁 등에 그대로 사용하고 쓰레기등 오염물질을 정제하지 않은 채로 흘려보내고 있어 하천 오염과 비위생의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반면 프놈펜,

Batdambang, Kampong Sam과 같은 대도시들은 비교적 급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근래에 들어 도시지역 역시 인구증가와 함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급수문제와 함께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예방도 매우 취약한 분야로서 특히 태국 접경지역의 보건상태가 극히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병종으로는 수질과 관련된 각종 질병외에 결핵, 악성 말라리아등이 널리 퍼져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말라리아의 경우 연간 50만명이 감염되어 오천 내지 1만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결핵 감염을 또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년 평균 2만명 정도가 새로 감염되고 있으며 비타민 A와 요오드 결핍으로 생기는 빈혈과 야맹증도 전국적으로 발생율이 매우 높다. 이처럼 열악한 보건환경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5세이하 사망율은 세계 최고치인 천명당 193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양상태 또한 저조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10%, 지방인구의 약 20% 정도가 영양결핍을 겪고 있다. 반면 이러한 보건환경과 관련된 의료시설은 극히 부족하여 캄보디아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원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약초를 사용하는 민간요법이 발달하여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의료행위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서구식 의료시설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나마 넉넉치 못했던 의료시설은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이후 더욱 파괴되어 1979년에는 병원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국내에 잔존해 있는 의사수도 43명에 불과하였다. 이후 평균수명이 31세로 저하되는 등 캄보디아의 의료문제의 심각함이 대두되자 국제사회로부터 구호차원에서의 원조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을 복원하는 사업에 특히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병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의료진들은 수준이 떨어지나 국내에서 양성된 의사들과 베트남, 동구지역 등에서 파견된 의사들로 채워졌으며 지방병원들은 서구식 의학시

설부족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전통의학시설을 부설시켜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복원노력에 힘입어 1980년이후의 사망율은 다음표에 나타난것처럼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내란과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품들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와 각종 NGO 단체들이 의료품 배급을 돕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의 병원들은 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와같은 정부차원에서의 보건정책의 실패로 인해 민간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통제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 의료의 질은 물론 의료비 과다 청구행위도 부쩍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산아제한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낙태와 불임수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콘돔, 피임약 등은 수입을 통해서 비교적 보급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최근들어서는 태국접경 지역에서 밀입국 등으로 인해 AIDS 감염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표 1-4〉 출생율 및 사망율

(단위 : 명)

구 분	1975~80	1980~85	1985~90
천명당 출생율	30.0	45.5	41.4
천명당 사망율	40.0	19.7	16.6

자료 :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s Ltd.

라. 생활관습

캄보디아의 생활관습이나 문화는 종족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크메르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1) 가족제도

캄보디아의 가정생활은 주로 핵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가족간의 감정적 유대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특히 지방부락의 경우 이웃간의 공동체의식이 발달하여 힘든 일을 서로 공동작업을 통하여 행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다. 반면 이름에 가족의 성을 따서 쓰는 풍습은 없으며 조상을 모시는 기준도 일부 왕족이나 귀족을 제외하고는 위로 2~3대에 국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내에서 가장의 역할은 남편이 담당하나 기타 가계, 살림, 자녀교육은 여자의 몫이 된다. 전통 크메르족의 가족단위 규모는 중국, 베트남 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로서 적정 자녀의 수는 5명 정도였으나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 여성의 91%가 피임을하기를 원하며 74%가 적어도 한가지의 피임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적게 낳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부모자식간의 관계,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가 매우 엄격하여 연장자를 공경해야 함은 물론 부모의 자식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아이들은 대개 7~8살에 학교에 들어가며 11~19살의 기간중 남자 아이들에 한해 일정기간 불교수도의 과정을 치루게 되는데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수도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한다. 결혼 적령기는 남자가 19~25세, 여자가 16~22세로 다소 이르며 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중매결혼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면 일부다처제도 가능하나 실제로 혼한 일은 아니며 본처가 첩을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가족관계외의 인간관계를 가족관계 이상으로 승화시키는 “Thoa”와 “Kloeu”라는 두가지 풍습이 있는데 전자는 두사람의 동의하에 친밀함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양부모 또는 형제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후자는 두남자 친구간의 결의형제관계로 상대방과 자신의 피를 물에 타 마시는 의식이 따르며 친밀함의 정도 역시 매우 강해 일단 결의 형제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도 내가족처럼 보살피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가족이상의 관계가 성립된다.

(2) 주거 및 식생활

캄보디아 전통가옥은 주로 4×6m에서 6×10m 정도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나무골조와 억새풀로 엮은 지붕, 대나무로 된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억새풀 지붕은 비가 스며들지 않게 가파른 형상을 하고 있으며 연례적인 홍수에 대비하여 본건물이 약 3m정도의 각주 위에 건립되어 있어 두개의 계단용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가옥 내부는 3개의 방이 대나무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기 손님접대용 거실, 부모침실, 결혼안한 딸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들은 적당한 빈공간에서 잠자리를 찾는다. 부엌은 주로 건물 뒷편에 따로 위치하며 화장실은 집주변 아무 곳이나 구덩이를 파놓고 사용한다. 가옥의 건축은 마을의 여러 이웃들이 공동으로 건축하며 완공된 후에는 잔치를 베풀기도 한다.

한편 캄보디아인의 식생활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기타 생선과 채소 등을 반찬으로 섭취하는데 채소중에서는 Trakuon이라 불리는 일종의 수초를 많이 먹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대 이전까지 하루 500g 정도였으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쌀을 현미에 가까울 정도로 덜 정미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각종 양념과 함께 발효시킨 생선요리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며 양념으로는 후추, 레몬, 민트, 생강, 설탕 등을 많이 사용한다. 육류와 계란 등은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닌 경우 특별한 행사때만 먹으며(Cham족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함) 여러 국수종류의 음식도 발달되어 있다. 한편 과일종류로는 바나나, 망고,

파파야, 야자열매 등이 야생 또는 재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캄보디아 지방주민의 식생활의 특징은 하루에도 여러 끼니를 먹는다는 것이다. 하루중 첫번째 식사는 이른 아침 한조각의 과일이나 떡 종류로 시작하고 정식아침은 9~10시경 작업장인 들판에서 먹게 된다. 남자들에게는 12시경 먹는 점심이 가장 큰 식사이며, 오후 5시경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인의 식생활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었으나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양결핍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공동 배급제가 실시되어 이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다. PRK가 들어선 이후 식량사정이 다소 좋아지긴 하였으나 1980년 쌀 배급기준이 일인당 한달평균 2kg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기간 식량난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옥수수, 감자 등의 대체용 곡식과 야생과일, 낚시, 사냥 등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이러한 식량난이 계속된 결과 1984년 한 통계에 약 50%의 젊은이들이 영양결핍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고된 적도 있었다.

(3) 기타관습

캄보디아의 결혼의식은 길고도 화려하다. 3일동안 계속되는 이 의식은 첫날 아침 신부의 집에서 시작되어 각종 불교의식과 전통의식을 행하며 식이 끝난 후에는 양가집 주관으로 연회가 베풀어진다. 식을 마친 신랑신부는 신부집에 거처를 정하고 새집이 지어질 때까지 신부의 부모와 함께 사는데 그 기간이 1년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식도 크메르루즈 정권동안 가족간 또는 남녀간 분리정책을 자행함으로써 많이 바뀌어졌다.

이혼은 합법적이고 절차도 간소하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하게 행해지지 않는다. 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 여자도 결혼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의 반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주로 여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혼한 사람들은 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하며 재혼할 경우 여자는 이혼일로부터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한편 일부다처인 상황에서는 정식으로 맞이한 첩일 경우 이혼에 따른 법적인 권한을 갖지만 내연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인식은 서양인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들은 죽음을 큰 슬픔으로 대하기보다는 한 생애의 종말임과 동시에 다른 생의 시작으로 여기고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 장례식은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으로 치루어지는데 화장한 재는 사찰의 탑에 보관되며 남은 치아나 뼈는 유족들에게 증정되어 금목걸이와 함께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상주들은 애도의 뜻으로 삭발한 채로 흰색소복을 입으며 상가집 앞에는 흰색 삼각기가 걸린다.

마. 사회계급 및 사회적 유동성

공산정권이 들어서기전의 캄보디아의 사회계급은 정부고위층, 군부실세,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한 상류 엘리트계급으로부터 소작농, 도시의 막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하류계급까지 여러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시아누크가 축출되기 전까지는 시아누크 가문과 연관된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후 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위는 후천적으로 커온 엘리트그룹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군부실력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대중들의 존경심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이들 최상류계층은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밑에 있는 계층이 최상류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경직된 사회계층의 형성은 상류 엘리트그룹의 하단부에 속하는 지식인들, 즉 공무원, 전문직장인, 대학생, 일부 종교인들에게는 큰 불만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법 컸던 1972년 이들의 불만으로 야기된

학생 데모는 휴교사태까지 몰고가는 큰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캄보디아의 중산층은 상인, 사무직 근로자, 교사, 의사, 점원, 초·중급 장교, 일부 승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농업 및 어업종사자, 육체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하류층에 속해있다. 또한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계층이외에도 경로사상, 남성우월주의, 종교에 대한 경외의식 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도 계층별로 존칭을 달리하는 등 신분에 따라 어형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신분간의 이동, 즉 사회적 유동성은 주로 도시에서 나타나며 지방의 경우 신분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관에 의해 주어진 현실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신분상승의 계기는 주로 종교인, 교육자, 공무원, 군인 등의 신분을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이유로 사무직 공무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II. 역 사

1. 개 요

크메르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먼저 인도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서 일찌기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계속되었던 후난(Funan)시대는 첸라(Chenla)시대로 계승되어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다. 크메르족의 전성기는 앙코르(Angkor)제국이 지배했던 9세기부터 13세기까지인데 이 당시 융성했던 캄부자(Kambuja)왕국의 명칭이 현대에 와서 캄푸치아(Kampuchea)와 캄보디아(Cambodia)의 국호를 정하게 된 근원이 되고 있다.

1431년 앙코르제국의 멸망이후 19세기까지는 크메르족의 쇠퇴기로 이 기간동안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 국토와 인구가 점차 잠식당했으며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현재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시아누크를 중심으로 왕정사회주의를 실시하였으나 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당시의 수상 론놀(Lon Nol)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무너뜨리고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을 건립하였다. 1975년 베트남의 패망이후 중국의 지원을 받은 크메르루즈군이 정권을 장악, 폴포트(Pol Pot)를 중심으로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를 건립하였으나 민주캄푸치아는 1978년 베트남 침공으로 또다시 붕괴되고 캄푸치아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 PRK)이 들어섰다. 이후 캄보디아는 헝삼린(Heng Samrin)이 이끄는 PRK와 대항하여 시아누크, 폴포트,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 KPNLF)의 손산(Son Sann)등이 각기 저항활동을 전개하다가 1982년 이 세 반정부세력을 통합하는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 CGDK)를 구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반정

부 활동을 펴게 된다. 한편 1987년 헝삼린 정부가 “국가평화정책”을 선언하면서 캄보디아 내전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6월 동경에서 열린 훈센(Hun Sen)과 시아누크간의 회담에서 시아누크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국가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 SNC)의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어서 열린 파리회담의 평화협정을 근거로 1992년 2월 UN은 UN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 UNTAC)를 설치하였다. 1993년 5월말 UNTAC의 감독과 지원아래 총선을 실시하고 입헌군주제 개헌을 통해 시아누크를 국왕으로 추대하였으나 각 계파간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아직도 캄보디아 정국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2. 고 대 사

가. 후난(Funan) 과 첸라(Chenla)

현 캄보디아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적으로 미루어 볼때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원시적인 문화속에서 생활하였고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세기경에 이르러서였으며 이 당시 인도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후난이 크메르족의 첫번째 왕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Mekong 삼각주 하단부에 위치하였던 후난은 주로 Mekong강과 Tonle Sap강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교통과 통신수단은 거의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업수단으로는 어업과 벼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쌀의 잉여생산이 후난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같은 논농사의 번성에는 내륙지방의 풍부한 관개수로가 그 원천이 되었다. 이외에도 해상무역의 활발한 전개도 후난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후난은 이후 국세를 더욱 확장하여 5세기 경에는 Mekong강의 하단부와 Tonle Sap 주변지역까지 지배하였으며 현 캄보디아 북부, 라오스 남부, 태

국 남부와 말레이반도 북부 등지에 퍼져있던 약소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인도문화의 전파는 상인, 외교관, 승려들의 왕래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4~5세기경 인도로부터 상당수의 이민자가 흡수되었다. 따라서 5세기경 후난의 상류문화는 거의 인도문화에 동화되어 궁중의식이나 정치제도, 법령 등이 인도와 유사하였으며 인도의 언어와 문자도 널리 성행하였다. 5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룩했던 후난도 6세기 초에 접어들면서는 내전과 왕권다툼으로 쇠락하고 7세기말 마침내 북쪽에 위치한 첸라(Chenla)왕국에 의해 세력을 빼앗기게 되었다.

첸라 역시 크메르족의 국가로서 패권을 잡은 이후 약 3세기 동안 라오스, Mekong 삼각주 등을 침공하여 영토를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첸라의 왕조는 일찌기 후난의 왕조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 종교적인 면에서는 후난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8세기 무렵 첸라는 내분으로 인해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는 비운을 맞게 되었는데 서로 양쪽이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북첸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던 반면 남첸라는 계속되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8세기 말엽부터 Java, Sumatra, Malay 반도의 해적들로부터 침공을 받은 남첸라는 결국 9세기에 이르러 Sailendra 왕조가 이끌던 Java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

나. 앙코르(Angkor) 제국

당시 Mekong 삼각주 북쪽에 위치하였던 조그만 크메르왕국의 지도자가 Java로 인질로 끌려간 일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바로 앙코르제국의 창시자인 Jayavarman 2세 였다. 그는 그의 통치기간중 국호를 캄부자(Kambuja)로 명명했으며 크메르족을 Java로부터 해방시키고 단일국가로 통합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9세기 초부터 15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앙코르 제국은 크메르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다.

Jayavarman 2세에 이은 후계왕들은 국토의 관개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앙코르제국은 쌀의 잉여생산을 바탕으로 수백년간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당시의 국가발전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점에 미루어 13~14세기 앙코르의 쇠퇴과정도 관개시설의 황폐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앙코르제국은 또한 번성기 동안 사찰의 건립등 종교·문화적 사업에도 많은 업적을 남겨 여러 귀중한 유적들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와같은 빛나는 업적들로 인해 앙코르시대는 캄보디아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던 크메르루즈 조차도 앙코르제국의 사찰을 국기에 심벌로 삼입할 정도로 캄보디아인들에게는 국민적 자긍심이 강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앙코르제국의 사회는 매우 엄격한 계급제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모든 토지와 백성은 절대적 왕권의 소유물이었다. 왕족 밑으로는 원로 승려와 고급 관료가 상층계급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는 10세기경을 기준으로 약 4,000명 정도였다. 한편 평민계급에게는 강제노역의 의무가 과다하게 주어졌으며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최하층 노예계급도 고대 이집트처럼 각종 기념물 등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다.

앙코르제국은 11세기 Suryavarman 2세가 즉위한 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국토를 현재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반도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국토팽창에 따른 여러 건설사업의 과다한 추진은 앙코르 제국의 몰락에 큰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앙코르제국은 Jayavarman 7세의 죽음이후 본격적인 쇠퇴기로 접어들어 광활한 영토가 주변국들의 침공을 받아 잠식당하기 시작했으며 종교면에서도 정통성을 지켜왔던 힌두(Hindu)와 대승불교(Mahayana)가 스리랑카로부터 건너와 널리 전파된 Theravada불교의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Theravada불교는 기존 불교와는 달리 절대왕권에 대해 지원을 보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제의 젖줄이었던 관개시설의 황폐는 앙코르 제국의 회생 가능성마저 짓밟는 결과가 되었다. 앙코르제국은 결국 이같은 몰락의 길을

건다가 1444년 Ayutthaya 왕조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크메르족은 지금의 수도 프놈펜지역을 중심으로 새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3. 근대사 이후

가. 프랑스 식민시대

앙코르 제국의 몰락 이후부터 19세기 중반까지 4세기동안은 캄보디아 역사상 암흑기로 일컬어질 만큼 크메르족에게는 고난의 시기였다. 이 기간동안 크메르족은 주변국,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 내정간섭을 받으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퇴색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특히 19세기 중엽에는 태국과 베트남의 패권다툼 속에서 생존 자체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러 오히려 당시 프랑스의 개입이 없었다면 양국중 한나라에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1970년대 크메르루즈시대에 와서 민족주의에 대한 집착과 외국인에 대한 배척의식이 강했던 것도 상당부분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당시 전쟁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겪은 고난과 혼란은 1970년대의 상황과 다소 비견되는 면도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현대의 캄보디아 정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은 크메르족에 대해 박해를 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있으나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우선 태국은 종교, 문화관습, 문학 등의 측면에서 캄보디아와 유사성이 많았으며 태국왕조의 캄보디아에 대한 정책도 캄보디아의 충성과 공물을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지 크메르인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바꾸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크메르족을 원주민족으로 보고 베트남의 문명을 통해 개화시킴과 동시에 비옥한 캄보디아의 토지를 베트남계 정착민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식민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에 들어서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차원에서 인도에서 밀려난 후 인도차이나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은 캄보디아 자체에 대한 중요정보보다는 베트남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반면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태국을 견제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도 당시로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Ang Duong 국왕은 프랑스 외교사절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1863년 Ang Duong의 뒤를 이은 Norodom은 프랑스와 마침내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조약에는 프랑스가 캄보디아 왕정을 지켜주는 대신 그 댓가로 광물·임산자원의 채굴 및 이용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프랑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노예제도의 폐지, 토지의 사유화, 캄보디아내 프랑스인 거주지역 설정등 계속되는 프랑스의 강압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완전히 프랑스 식민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프랑스 식민통치는 경제적으로는 캄보디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캄보디아 내에 경제성이 큰 자원이 별로 없고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캄보디아 경제개발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가 식민통치를 통해 캄보디아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조세제도의 개혁이나 약간의 사회간접자본건설등 주로 지엽적인 분야에 국한되었다.

당시의 캄보디아 경제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와 옥수수, 쌀 등으로 수출을 통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반면 기타 산업부문은 주로 농업생산물가공과 관련된 산업들로서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많은 이민이 이루어져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복수민족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최초 고무농장

의 노동자와 정부의 서기직등으로 시작되었던 베트남 이민은 점차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계 이민은 이미 식민시대 수백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캄보디아 상권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기득권은 프랑스의 식민통치가 직업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독립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은 프랑스의 식민정부를 와해시키고 1945년 3월 시아누크왕을 내세워 표면상 캄보디아의 독립을 주창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이후 캄보디아의 정국은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프랑스가 캄보디아로 돌아와 여러 유화정책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이미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으며 캄보디아내에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급속히 달아 오르고 있었다. 이 당시 시아누크는 프랑스와 독립문제를 협상하는데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두각이 1970년까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1946년 프랑스는 캄보디아의 정당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왕에 대한 자문형식의 의회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첫번째 선거에서 Sisowath Yuthvong 왕자가 주도하고 교사, 공무원, 승려들의 지지를 받던 민주당은 지방유지들의 이권을 대변하던 Norodom Norindeth의 자유당을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의회정치의 시작은 왕권을 상징적인 의미로 제한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권력의 이중 구조속에서도 시아누크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캄보디아 정치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민주당을 이끌던 Yuthvong 왕자의 타계후 의회가 구심점을 잃고 있을때 시아누크는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약 50%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는데 이 협상을 통해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행정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5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국가들이 캄보디아의 외교권을 인정하였

으며 이들중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과 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2년 시아누크는 헌정의 중단과 내각의 해산을 선언하고 수상으로서 자신이 정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듬해 일방적으로 의회의 해산과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이로인해 이후 1955년까지 시아누크는 단독으로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해 올 수 있었다. 한편 독립을 위한 활동으로 시아누크는 1953년 3월 프랑스로 건너가 캄보디아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Royal Crusade for Independence)과 프랑스 정부와의 교섭활동을 수개월간 적극 실행한 결과 인도차이나의 군사적상황 악화로 이 지역에서 더 이상의 식민지 정책이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로 하여금 마침내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1953년 11월 9일을 독립일로 지정한 캄보디아는 이듬해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으며 독립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시아누크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나. 시아누크 시대(1954~70)

시아누크는 동남아시아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애국자 또는 중립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통치기간 동안 그는 캄보디아를 전쟁의 소용돌이와 인접국의 혁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에도 군사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Khmer Issarak이 정부쪽에 가담하고 공산베트남이 프랑스 식민통치군의 쇠퇴에 따라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1954년에는 일부 공산베트남 병력들이 국경을 넘나들었으나 세력이 약한 캄보디아측에서는 이들의 완전철수를 요구하지는 못했으며 공산세력의 이러한 도발에는 다분히 제네바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차이나의 평화유지를 위해 열렸던 제네바 협상에는 캄보디아, 남·북 베트남, 라오스, 중공, 소련, 프랑

스, 영국, 미국등이 참가했으며 캄보디아에 관한 동회의 결정사항으로 동년 10월까지 캄보디아 영토에서 공산베트남과 프랑스의 병력을 완전철수하고 캄보디아는 유엔헌장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자체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한 캄보디아내에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캄보디아는 또한 제네바 협정에 의해 구성된 International Control Commission의 감시아래 1955년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시아누크가 창설한 정치단체인 Popular Socialist Community가 예상대로 민주당에 대응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시아누크는 이후 체제유지를 위한 보수 노선을 지향하면서 1960년대 초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숙청해 나갔다. 한편 시아누크는 공산주의에 대해 일종의 모순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우선 그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혁명적인 중국을 추앙하게 되었으며 “왕권 사회주의”라는 애매한 원칙속에서 여러 사회주의정책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63년에는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융, 보험, 무역 등의 부문을 국영화하였으며 이듬해 국제무역을 전담하는 국영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외교면에서 시아누크의 비동맹주의는 캄보디아의 외세침략의 역사와 당시 캄보디아의 장래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베트남 전쟁의 가속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한때 라오스, 남베트남 등을 포함한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의 참여를 고려해 본적도 있었으나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이나 반시아누크파에 피난처를 제공한 남베트남에 불편한 기분을 갖고 있었다. 한편 1955년 반동회의에서 중국, 북베트남과 회담한 시아누크는 인도차이나에서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서구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교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는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그 가치를 깊이 인정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간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 있

는 관계로 중국의 입장에서서는 캄보디아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동맹세력이 중국의 국경을 에워싸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는 캄보디아가 비공산권 국가중 중국 최초의 원조대상국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외교정책은 단순히 중국에만 의존하는데 머무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외국의 원조를 가능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던 미국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시아누크는 1955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후 수년동안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지원액은 캄보디아 국방예산의 약 30%, 전체예산의 약 1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와 미국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시아누크가 아시아의 공산세력에 대항하기에는 미약하고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반면 캄보디아는 미국이 캄보디아 군사문제에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베트남전쟁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영공을 지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시아누크의 불신감등은 양국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으며 1963년 11월 마침내 시아누크는 미국이 태국과 남베트남에 있는 반정부세력들을 도와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더이상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대미관계의 악화와 함께 시아누크는 북베트남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지명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일한 국가원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북베트남은 치열한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한 대내 혼란의 수습에 바빠 대외정세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캄보디아의 중립노선이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시아누크는 중국, 북베트남과의 관계를 기존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서방국가와의 관계재건을 모색하여 외교적 균형점을 찾으

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아누크는 미국의 원조를 거부한 것이 매우 큰 군사적, 경제적 손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1968년 그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공산군을 추적해서 캄보디아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으며 1969년 3월에는 캄보디아내의 피신처에 은신한 북베트남 공산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묵인하였다. 이러한 유화적 노력에 따라 마침내 동년 6월 미국과 캄보디아는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 시아누크의 정치노선은 변덕스러운 행태로 인해 급진세력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보수세력들도 경제정책의 실패와 캄보디아 영토에 대한 베트남의 침범등을 이유로 시아누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과거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왔던 시아누크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지방에서는 반정부 공산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는 빈부격차가 심했던 Batdambang의 Samlot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수상으로 있던 론놀(Lon Nol)과 시아누크는 공산반군의 폭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사태를 임시 수습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1만여명이 사망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폭동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1968년에는 공산반군들이 캄푸치아 혁명군대(Revolutionary Army of Kampuchea)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국외의 지원은 시아누크의 통치기간중에는 북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원조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캄보디아 공산세력에 대한 국제공산당의 무관심은 북베트남과 중국, 소련까지도 시아누크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폴 포트(Pol Pot)를 비롯한 크메르루즈의 지도자들은 국제공산당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혼란이 계속되던중 미국의 지원을 받은 론놀 장군은 시아누크가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중이던 1970년 3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동시에 캄보디아 의회는 시아누크를 권좌에서 축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아누크 정권하에 수상을 지내기도 했던 론놀장군은 쿠

데타 직후 국제적 공인과 더불어 군부와 지식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캄보디아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국호를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시아누크의 실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지식인층에는 환영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시아누크의 지지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아누크는 중국에 머물면서 독자적으로 National United Front of Kampuchea(Front Uni National du Kampuchéa : FUNK)를 창설하였고 1970년 5월에는 중국의 지원으로 Kampuchean Communist Party(KCP)와의 연합세력을 구축, Royal Government of National Union of Kampuchea (Gouvernement Royal d' Union Nationale du Kampuchéa : GRUNK)의 지도자로 추대되었으며 이외에도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론놀의 몰락과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의 등장

론놀의 크메르공화국은 최초에는 캄보디아인 다수의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수개월도 채 안되어 비능률과 부패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정국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갔다. 군사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론놀의 지지기반이었던 도시주민과 군부의 태도는 크메르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쌀과 고무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크게 감축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특히 쌀의 주요 생산지는 시아누크가 주도하는 Funk에 의해 대부분 통제받고 있어 크메르 정부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캄보디아의 내전은 론놀의 정부군인 Khmer National Armed Forces(Forges Armées Nationales Khmères : FANK)에 불리한 형국으로 진행되었다. FANK는 초기에는 북베트남과 맞서 싸우다가 이후에는 폴포트가 창설한 혁명군(Cambodian People's National Liberation Armed Forces : CPNLAF)과 대치하였는데 쿠데타 발생 3개월후인 1970년 6월에 이미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북동부지방을 CPNLAF

에 내주었으며 크메르 루즈 역시 남부와 남서부지방을 석권하고 일명 “해방 지역”을 선포하였다.

한편 미국은 캄보디아 내에 분산되어 있는 공산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하였는데 특히 1973년 여름의 공습은 크메르 루즈군이 수도 프놈펜으로 쳐들어 오는 것을 사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미국의 공습은 규모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에 투하되었던 화력의 약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1973년 8월 공습을 멈출 때까지 엄청난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캄보디아간의 주요 현안사항이 되어왔을 뿐아니라 당시 크메르루즈에게는 북베트남과의 관계악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동년 개최된 파리평화협정은 캄보디아 공산세력이 참가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으며 협정에 따른 대베트남, 라오스 공습의 중단은 결국 미국의 공군력을 크메르루즈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크메르루즈군은 프롬펜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캄보디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난, 고질적인 파업등으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치·군사적인 상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크메르 정부군은 우수한 장비와 무기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베트남, 북한으로부터 약간의 군사원조만을 받았던 크메르루즈군에게 점점 밀리고 있었으며 1975년 1월 마침내 대규모 전투에서 패퇴하여 Mekong강 일대와 프롬펜으로 들어오는 공급로를 장악당하고 말았다. 1975년 4월 1일 론놀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으며 정부군은 크메르루즈군의 계속되는 공격에 더 이상 맞서지 못하고 1975년 4월 17일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였다.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새정부의 탄생이 오랜 혼란기를 거치면서 간절히 기대해왔던 바램이었지만 크메르루즈의 집권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크메르루즈는 프롬펜 점령직후 프롬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주민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대 이동작업을 시행하였다. 즉 그

들은 도시생활의 부패를 뿌리뽑고 전국민을 소작농화하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강제 이동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기아와 질병에 희생되었다. 또한 적계는 수십만에서 백만에 이르는 인구가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되었는데 한 예로 약 1만6천구의 시체가 널려있는 “Killing Field”가 외신기자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였다. 1975년부터 78년까지의 총 희생자 수는 각 통계마다 차이가 심해 정확한 수치가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대략 당시의 총인구의 11%에서 3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76년 1월에는 새 헌법이 발효되어 국호를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 DK)로 개칭하고 총선을 통해 250명의 새 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크메르루즈 여러분파들중 하나를 이끌던 폴포트(Pol Pot)가 수상직에 올라 이전 어느 공산혁명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급진적인 혁명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아누크는 국가원수직을 사임하고 가택 연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정부의 구성이 폴포트계열의 권력장악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 새정부 탄생이후에도 폴포트와 베트남지지 세력간의 갈등과 알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1976년 9월에는 폴포트가 일시적으로 수상직을 사임한 적도 있었으며 이후에도 민주캄푸치아의 지배세력은 폴포트, 베트남 지지세력, 중국문화혁명 추앙세력등 세 계파간 세력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캄보디아는 지배세력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사회로 지식층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가해져 집권기간 동안 수많은 교사와 의사등이 처형되었으며 학교가 폐교되고 국내의 책중 약 80%가 버려지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사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집단농장을 결성하여 강제노역을 시행하였으며 화폐를 통한 거래를 전면 폐지하고 철저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측면에서는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무역거래만이 행해지고 있었다.

외교면에서 민주캄푸치아는 공산국가중에서도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었던 반면 베트남과는 양속관계에 있었다. 1975년부터 계속되었던 베트남·캄보디아간의 분쟁은 이듬해 폴포트가 내정에 정신을 쏟는 동안 개선되는 기미가 보였다가 1977년 수상직에 복귀하면서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내 반폴포트 세력을 지원하여 동년말 마침내 12만 대군을 동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전쟁시작 17일만인 1979년 1월 7일 수도 프놈펜이 함락되자 베트남은 신속히 친베트남 정권을 수립하였고 패퇴한 폴포트 집단은 다시 반정부세력을 구성, 예전처럼 반란군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크메르루즈는 여전히 세력이 강했고 당시 대외적으로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었다.

라. 베트남 침공이후

베트남은 크메르루즈군의 사령관이었던 헝삼린(Heng Samrin)을 내세워 친베트남 정권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 PRK)을 설립하고 이전 폴포트정권의 대학살과 강권정치에 대응하는 유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집회와 종교의 자유, 가족제도, 자유시장체제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경제·사회적 개혁을 이루었으나 이미 캄보디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반베트남 감정을 해소시키기에는 미약하였다. 또한 축출된 크메르루즈가 태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부지방에 거점을 잡고 전국적으로 게릴라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새정부의 진로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양세력에 반대하는 전직수상 손산(Son Sann)의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 KPNLF)을 비롯하여 여러 군소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정국은 다집단이 서로 대치하는 혼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1982년 6월에 베트남군의 축출을 목표로 반베트남세력의 연합체인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 CGDK)가 구성되어 대통령에 시

아누크, 부통령에 크메르루즈의 키우삼판(Khieu Samphan), 수상에 손산을 임명하였다. 이 연합정부가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지지와 UN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반면 베트남과 헝삼린 정부는 소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이 당시 캄보디아 내전은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한편 1984년~85년 기간중에는 베트남이 태국 국경지역에 운집한 반정부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이 지역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2만3천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중 상당수의 베트남 이민이 캄보디아에 이주 정착했는데 그 숫자가 적게는 5만7천명(헝삼린정부 발표)에서 많게는 70만명(망명 연합정부 발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랜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7년말 시아누크와 헝삼린 정부의 각료 위원회의장 훈센(HunSen)은 베트남 침공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에서의 비공식 대면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 내전은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협상내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자는 내용에 잠정합의하여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 노력은 많은 진전을 보여 1989년 가을 마침내 베트남군이 완전철수하고 훈센은 이어서 베트남군 철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위해 UN에 조사반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1990년초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호주가 제안했던 평화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안은 UN이 캄보디아의 행정권을 위임받으며 국가최고위원회를 구성한후 국제적 감시하에 총선을 치른다는 것이었다. 동년 2월 훈센과 시아누크는 캄보디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UN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에 합의하였고 8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TAC을 구성하고 동기구가 캄보디아의 외교, 국방, 재정, 내무, 정보, 공보, 문화 등의 업무를 통제한다는 평화정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소련과 중국도 캄보디아 정부군 및 반정부군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UN평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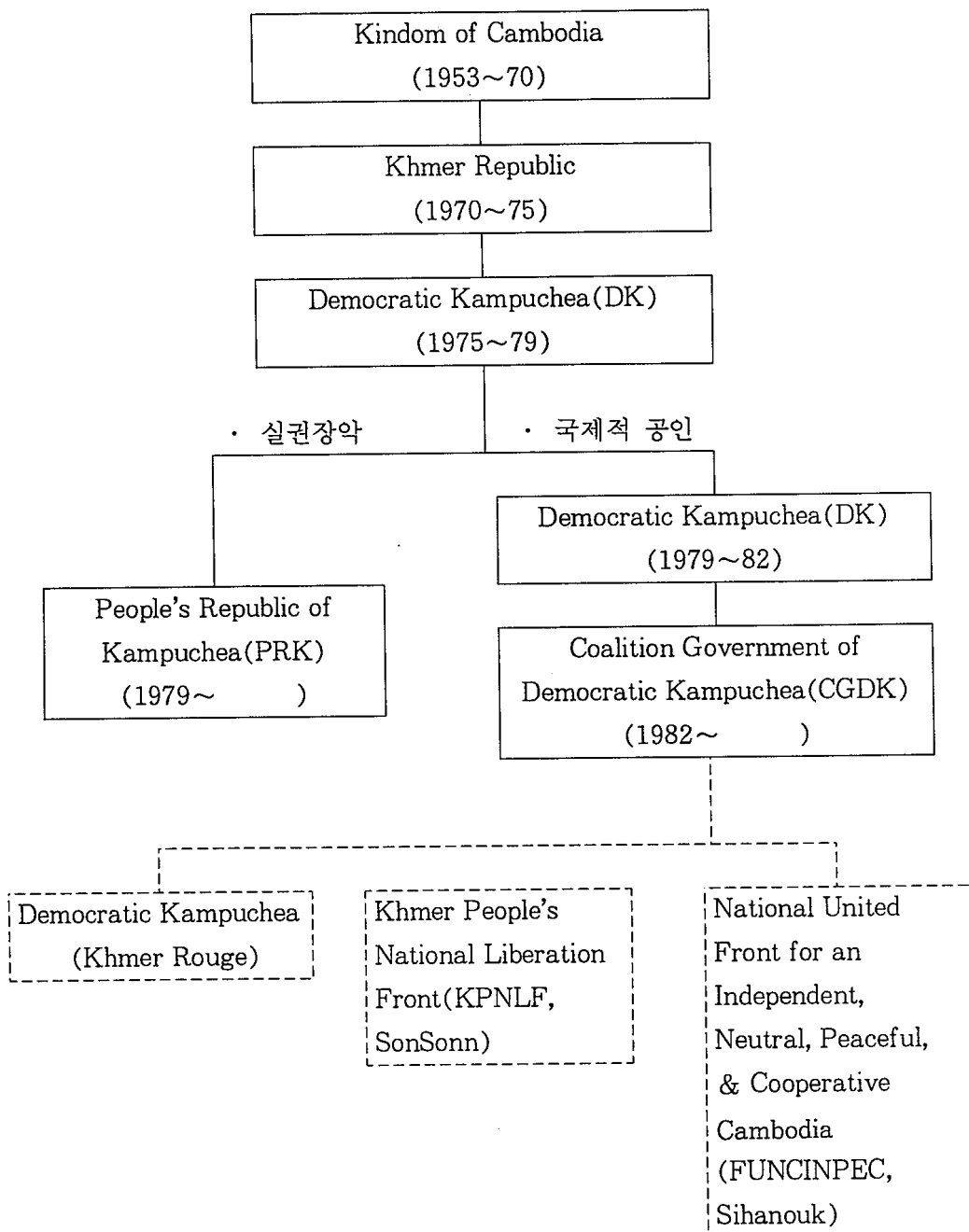
안은 1991년 10월 파리 회담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으며 이후 무장해제, 총선참가 거부등 크메르루즈의 방해활동으로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캄보디아의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과 각 파벌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1993년 5월말 예정대로 120명의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을 실시하였다.

약 90%에 이르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금번 총선의 결과는 시아누크의 아들이 이끄는 제1야당인 민족연합전선(Front Uni National pour un Cambodge Indépendant, Neutre, Pacifique, et Coopératif : FUNCINPEC)이 총 120석중 58석을 확보하여 최다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51석, 손산 전총리의 불교자유민주당(BLDP)이 10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총선결과는 시아누크와 아들 라나리디(Ranariddh)의 대중적 인기, 경제적 과탄과 프놈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캄보디아인들의 전통적인 반 베트남 감정을 나타낸 야당의 승리라고 볼수 있겠으나 어느 세력도 과반수 의석을 얻지못해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각 세력들간의 협상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총선후 3개월내에 헌법을 제정하여 신정부를 구성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동년 9월 입헌군주제와 다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 헌법안을 확정하고 시아누크를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새 헌법안의 주요내용은 국왕에게 군통수권과 내각임면 동의원을 부여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다는 것과 민족적 종교적 평등의 보장, 사형제의 폐지, 성차별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가지 독특한 점은 향후 5년간의 신헌법 1차내각에 한해 2명의 공동총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정파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나타내는 것으로 라나리드와 훈센이 각각 제1, 제2 총리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캄보디아의 정국은 국왕과 FUNCINPEC, 캄보디아 인민당, 크메르루즈 등 각 세력간의 권력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권력의 중심에서 있는 국왕 시아누크의 정

치기술이 향후 정국안정을 가늠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 -1] 독립이후부터 파리회담 이전까지의 정부형태의 변화



주 : _____ 선은 소속단체

자료 : Rusell R. Rose Cambodia : A Country Study(Library of Congress, 1987)

〈표 II-1〉 캄보디아 주요 정치연감

1세기	현캄보디아와 베트남 지역에 후난(Funan)왕국 건립.
6세기	후난의 멸망과 첸라(Chenla)왕국의 등장.
800	앙코르(Angkor)제국의 건립.
1444	주변국 아유타야(Ayutthaya)에 의해 앙코르제국 멸망.
1863	프랑스와 보호조약 체결.
1941	프랑스에 의해 노로돔 시아누크가 캄보디아 국왕으로 등위.
1945	전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일본이 프랑스 식민정부를 대체. 시아누크, 캄보디아 독립운동 시작. 일본의 항복과 프랑스세력의 재등장.
1947	첫 헌법제정 및 공포.
1949.11	프랑스 연방으로부터 부분적 독립.
1952	시아누크, 헌정의 중단과 내각 해산 공포.
1953.11	완전독립.
1954	제네바회담에서 시아누크 정부의 합법성 인정. 공산군 북베트남으로 철수시작.
1955	시아누크, 민주사회동맹(People's Socialist Community : SANGKUM)을 결성하여 총선에서 전의석 차지.
1956	중국과 원조협정 체결.
1958	총선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1962	총선 및 반정부세력의 분열시작.
1965	미국과 단교.
1966	총선 및 론놀의 수상직 등위.
1969	베트남 공산군 캄보디아 동부지방에 피난처 형성.

- 1969 미국의 닉슨정부 캄보디아 공습시작.
론놀, 수상직에 재임명.
미국과 국교재개.
- 1970 시아누크, 론놀에 의해 축출.
국호를 “크메르공화국”으로 개칭.
- 1971 론놀, 국가비상사태 선포.
- 1973 베트남전을 종식하는 파리협정체결 및 미국의 캄보디아 대공
습 시작.
- 1975 크메르루즈 프놈펜을 을 향해 최후의 공격시작.
론놀정부의 전복 및 크메르루즈 정권 수립.
- 1976 국호를 “민주캄푸치아”로 개칭하고 폴포트가 수상에 취임.
- 1977 폴포트, 공산당 지도자로 등장.
베트남과 국교단절.
- 1978 폴포트 진영 동부 난민촌에 대해 대규모 공격감행.
반폴포트세력, 캄푸치아 구국통일전선(Cambodian National
United Front for National Salvation : CNUFNS) 결성.
베트남과 CNUFNS, 캄보디아로 진격.
- 1979 프놈펜 함락 및 행삼린을 주축으로 하는 “캄푸치아 인민공화
국”의 친 베트남 정권수립.
중국, 북베트남 침공개시.
대규모 캄보디아 난민, 태국으로 도피.
- 1981 총선.
행삼린, 카푸치아 인민혁명당(Kampuchean People's Revolu-
tionary Party : KPRP)지도자로 추대.
- 1982 첸시(Chan Si), 수상직에 취임.
반정부 연합세력인 민주 캄푸치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
ment of Democratic Kampuchea : CGDK)결성.

- 1984 CGDK에 대한 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부군의 공격 시작.
첸시 사망후 훈센 총리취임.
- 1985 베트남 1990년까지 캄보디아로부터 주둔병력 철수의사 표명.
- 1987 훈센과 시아누크 프랑스에서 회담.
- 1988 캄보디아의 각 계파, 자카르타에서 비공식 대면.
- 1989 국호를 캄보디아(State of Cambodia)로 개칭.
- 1990 UN 안전보장이사회, 호주가 제안한 캄보디아 평화안 승인.
훈센과 시아누크, 캄보디아 평화에 UN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발표.
전투중지를 위한 동경회담 크메르루즈의 반대로 결렬.
각 계파, 자카르타 비공식회담에서 유엔평화안의 수용과 최고
민족회의(Supreme National Council : SNC)구성에 합의.
- 1991 시아누크, SNC 의장 및 FUNCINPEC대표단의 일원으로 임명.
파리회담에서 UN평화안 수용에 공식합의.
KPRP, 캄보디아 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 CPP)으
로 개칭.
시아누크, 귀국후 계파간 합의에 따라 총선전까지 국가대표직
에 추대.
- 1992 UNTAC 및 UN 평화유지군 파견.
- 1993 총선실시 및 입헌군주제 개헌.
시아누크, 새 국왕으로 추대.

III. 정치 · 행정 · 외교 · 군사 · 언론

1. 주요 정치 · 행정기구 (PRK)

캄보디아의 정치 및 행정구조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1981년 개헌에 의해 조직된 정부형태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 의회 (National Assembly)

캄보디아의 의회는 총 의석수가 약 120석으로 매 5년마다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의회의 기능은 개헌과 입법을 추진하는 일 이외에 내무 · 외무 정책의 결정, 경제 · 문화관련 계획안의 채택, 예산의 승인, 국가평의회 (Counsl of State)와 각료평의회(Council of Ministers)구성원의 선출과 제명, 과세와 면세의 결정, 사면의 결정, 국제협정의 비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집권당 KPRP이 대리기구인 국가위원회와 각료위원회의 의제를 법적 ·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능에 불과하다. 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나 필요에 따라 추가 소집이 가능하며 폐회중의 입법기능은 국가위원회가 맡도록 되어있다. 의결안은 국가평의회, 각료평의회, 의회 분과위원회, 여러 정치기구의 장들에 의해서 발의되어질 수 있으며 일반 의결안의 경우 과반수 거수에 의해 통과된다. 한편 의회는 내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료평의회 구성원들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각료평의회도 의회의 해산에 대한 권한은 없다.

나. 국가평의회 (Council of State)

국가평의회는 의회로부터 선출된 7인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가원

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7인의 임원들은 캄보디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강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의회의 폐회기간중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아니라 각료, 대사 등의 임면권과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는 국제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총선의 조직과 관리, 정기 및 임시의회의 소집, 헌법과 법률의 공포와 해석, 감형 및 사면, 협정의 비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모두 다루며 캄보디아주재 외교관들도 이 국가평의회에 신임장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다. 각료평의회 (Council of Ministers)

각료평의회는 정부최고의 행정기구로서 의장이 되는 수상이외에 2명의 부수상이 있으며 총 20명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각료평의회 장관들은 5년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수상직을 제외하고는 선출자격 요건으로 반드시 의회의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매주 열리는 집행회의에서는 월간 총회에서 다룬 안건의 준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적 보완책 강구, 정부기관의 업무진척 상황에 대한 조정과 검토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의결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회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반면 총회는 과반수 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라. 사 법 부

1979년이래 PRK의 사법권은 프놈펜과 기타 지방의 주요도시에 긴급 설치된 인민혁명재판소(People's Revolutionary Courts)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나 1982년 법률개정안을 통해 검찰부(Office of Public Prosecutor)와 법률의 최상위기관인 인민대법원(People's Supreme Court)가 설치되었다.

재판부는 인민혁명재판소, 군사재판소, 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평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가로 임시법정을 구성할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료위원회는 지방행정기구인 인민혁명위원회(People's

Revolutionary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판사와 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판사를 보조하는 2~3명의 고문관은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마. 지방인민혁명위원회 (Local People's Revolutionar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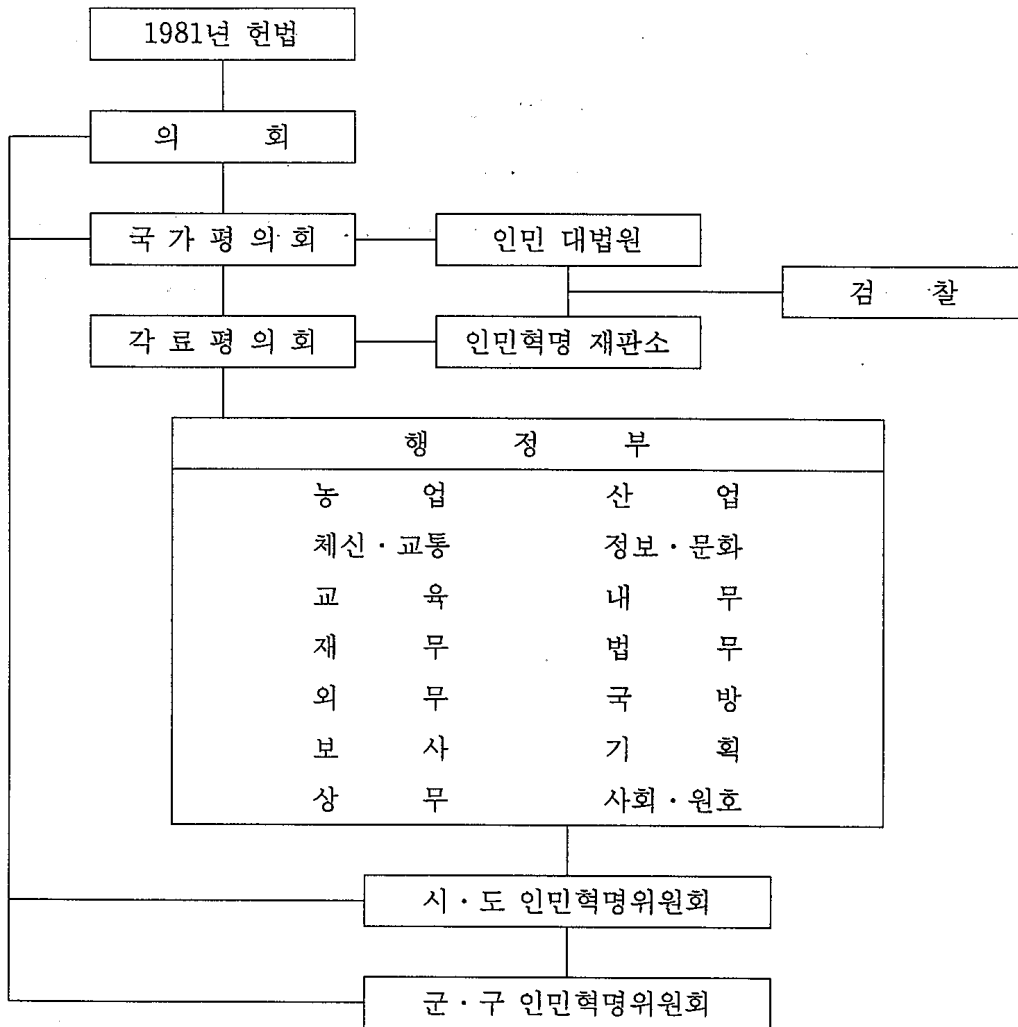
1987년 기준 캄보디아의 행정구역은 8개의 도(Khet)와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 2개의 특별시(프놈펜, Kampong Sam)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도는 다시 하부단위인 122개의 군(Srok), 1,325개의 면(Khum), 9,386개의 마을(Phum)로 나뉘고 특별시는 여러개의 Sangkat으로 분할되어 있다. 각 행정 단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민혁명위원회가 운영되는데 도와 군단위의 인민혁명위원회는 하위 인민혁명위원회의 대표들 중에서 선발하여 5년의 임기로 구성되는 반면 면단위의 인민혁명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선출하며 임기가 3년이다.

2. 파리회담 이후의 정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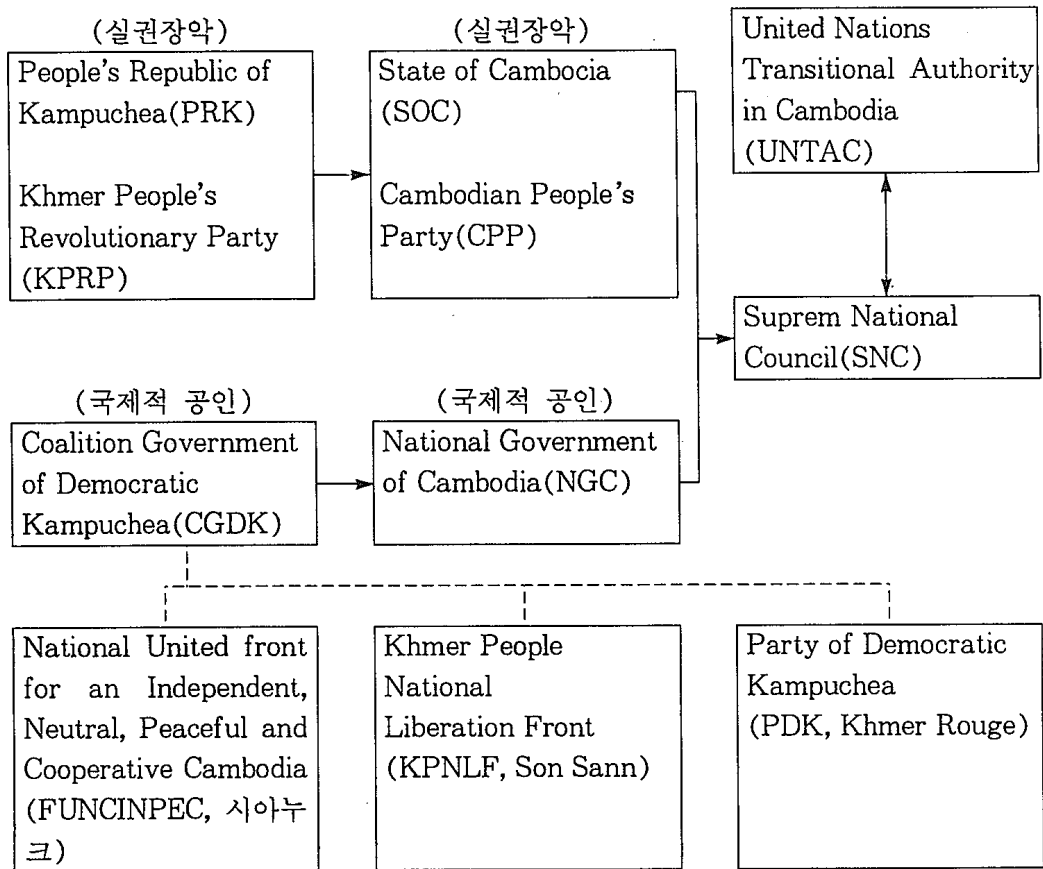
1991년 10월 파리협정 이전에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캄보디아 정부(State of Cambodia : SOC)와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 저항세력의 연합정부인 캄보디아 국민정부(National Government of Cambodia : NGC)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적인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협정이후 이 네개의 정치세력이 결합, 국가최고위원회(Supreme National Council : SNC)를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였다. 1992년 4월 이후에는 SNC가 UNTAC에 행정권의 대부분을 이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SOC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다. UNTAC은 SNC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하였으며 1993년 총선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5개의 주요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행정기능은 SOC의 각료평의회가 일상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각 결정사항

에 대해 UNTAC의 재정적, 행정적 통제와 SNC의 정책적 지배를 받는 형태가 되었다.

〔그림 III-1〕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정부구조 (1987)



[그림 Ⅲ-2] 파리회담 이후의 정치구조



주 : 선은 소속단체

〈표 III-1〉 주요 정치인물 및 직위 (1992년초)

○ Supreme National Council

의 장 : Prince Norodom Sihanouk

위 원 : 12명 (의장포함)

<u>State of Cambodia측 대표</u>		<u>National Government of Cambodia측 대표</u>	
Hun Sen		Khieu Samphan	(Khmer Rouge)
Tea Banh	(SOC 국방장관)	Son Sen	(Khmer Rouge)
Dit Munt	(SOC 외무장관)	Son Sann	(KPNLF)
Chhunlim		Ieng Muli	(KPNLF)
Sin Sen	(SOC 내무차관)	Prince Norodom Rannariddh	(FUNCINPEC)
Hor Nam Hong	(SOC 외무차관)		

○ State of Cambodia

국가평의회 의장 : Heng Samrin

각료평의회 의장 : Hun Sen

○ National Government of Cambodia

대통령 : Son Sann(수상겸직)

대변인 : Prince Norodom Rannariddh

외무담당 부통령 : Khieu Samphan

3. 외 교

1980년대 후반 반정부 세 계파간 연합세력인 민주캄푸치아연합정부 (CGDK)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정부(PRK)는 서로 캄보디아내의 평화공존

을 내세우면서 국제적 공인을 얻기 위한 외교적 경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CGDK가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공식정부로서 인정받았던 반면 캄보디아의 내정은 PRK에 의해 주도되었다. UN은 PRK에 대해 베트남의 지원과 무력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UN헌장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CGDK는 1987년 무렵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북한, 파키스탄,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유고슬라비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은 군사 및 물자원조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북한은 1970년대 초 시아누크 망명당시 북한내에 시아누크의 거처를 마련해줌으로써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또한 태국은 CGDK와 공식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CGDK이 지도자들을 초빙해 중국과 함께 인도차이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고 시아누크의 비공식 외교채널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외교의 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PRK는 베트남, 라오스, 구소련 및 동구유럽국가들과 비중이 큰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비공산권 국가로는 인도에만 주재공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제3세계와는 아프카니스탄, 앙골라, 콩코, 이디오피아, 리비아, 니카라구아, 파나마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이들을 다 합쳐도 1980년 기준 PRK를 인정한 국가의 수는 총 30여개국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도 PRK의 외교적 입지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가 1987년 약 80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되는 획기적인 외교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국제기구 가입실태는 CGDK가 UN과 여러 산하기구, ADB, 77그룹, GATT, World Bank, IMF, Interpol, 국제적십자사, 비동맹운동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 PRK는 국제기구와는 크게 교류를 갖지 못하고 일부 공산권과 비동맹국가, 민간국제자선단체 등을 통해 원조를 받는 정도에 머물렀다.

4. 군 사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군사규모는 육군 55,500명, 해군 1천명, 공군 5백명, 지방군 5만5천명을 포함해 총 11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캄보디아 연합정부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크메르루즈가 3만명, KPNLF가 1만~1만2천명, 시아누크의 독립 캄보디아군이 1만5천~1만8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PRK 정부군의 경우 주로 소련과 중국산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육군은 소련제 구형탱크와 장갑차, 소·중형포, 해군은 소형경비정 및 수륙양용차, 공군은 MiG-21과 Mi-8헬기 등이 주요 화력을 이루고 있는 반면 CGDK의 화력은 주로 중국제 소형화기에 의존하고 있다. 방위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밝혀진바 없으나 PRK의 군수물자는 대부분 소련과 베트남의 무상원조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역제도는 18세부터 35세의 남자를 대상으로 5년간 의무복무의 징병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현재 약 3천명의 베트남 군사고문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언 론

캄보디아의 언론과 방송은 국가에 의해 보도내용이 통제되는 철저한 국영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장 영향력있는 간행물로는 정부여당이 당의 대내외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주간 2회 발행하는 Pracheachon(The People)지와 KUFNCD의 주간지 Kampuchea 등이 있으며 1987년 현재 일간신문은 전혀 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라디오와 TV는 1983년 설치된 캄푸치아 방송위원회(Kampuchean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라디오 수신기 보유대수는 약 86만대 정도였으며

주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인 Voice of the Kampuchean People(VOKP)는 크메르어, 베트남어, 불어, 영어, 라오스어, 태국어 등 6개국어로 방송되고 있다. 1983년 베트남의 지원으로 설립된 TV방송망은 198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1986년까지만 해도 보유 TV수신기가 5만2천대에 불과하였으며 방송시간도 수도권지역에 한해서 하루 2시간씩 주 4회로 제한되어 있었다. 1987년 이후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통해 소련 TV방송의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9년 이후부터 헝삼린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당 기관지와 라디오를 구독 청취하도록 장려하였으나 이미 문맹율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수신기나 잡지의 구입이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론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IV. 경 제 현 황

1. 독립 이후의 경제발전과정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독립이후에도 산업화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상태속에서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조로운 경제구조속에서도 캄보디아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실례로 시아누크 왕정하에서는 무차별적인 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부분적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했던 반면 론놀은 그에 대응하여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제정책은 특정 시기만을 제외하고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이후 크메르루즈시대의 철저하게 자급자족을 추구했던 폐쇄주의적 경제정책은 캄보디아의 경제를 극도로 황폐화시켰다. 1979년 등장한 PRK정권은 베트남의 지원아래 사회주의와 소자본 규모의 시장경제화를 결합, 추진함으로써 경제복원을 위한 기틀을 어느정도 다지게 되었으나 계속된 혼란과 분쟁으로 1980년대 후반의 경제상황은 농림업을 위주한 빈약한 자원과 산업기반, Communist Economic Conference(COMECON)와 국제 NGO로부터의 원조에 겨우 의존하는 낙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 시아누크 시대 (1953~70)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던 시아누크는 외국의 원조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원조를 수용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극단적명분 아래서 초기에는 후자를 택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외국의 원조를 적절히 이용해 왔다. 그러나 1963년 시아누크가 외국의 원조를 자국의 안보문제와 연계하여 미국의 원조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을 계기로 캄보디아 경제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단행한 무역, 금융, 보험을 위시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는 오히려 1960년대 중반이후 캄보디아 경제불황의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또한 그는 임기 중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성장에 우선하여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에 역점을 둠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시아누크의 통치기간인 1952년부터 1969년까지 캄보디아의 GNP 실질성장율은 약 5%로 60년대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시아누크 경제체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한 반면 농업이 36%, 제조업은 12% 정도에 불과하였다.

농업에 크게 애착을 가졌던 시아누크는 농업부문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1969년에는 대부분의 농업종사자가 자기소유의 땅에서 자급자족에 충분한 쌀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농업생산은 적극적인 토지개량으로 경작지의 면적을 크게 증가시킨 반면 농업기술, 비료생산,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가 뒷따르지 못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외국의 원조는 캄보디아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중국과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구소련,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서독, 일본, 호주 등이 캄보디아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미국도 1955년부터 1962년 기간중 약 3억5천만불에 달하는 원조사업을 통해 공공보건, 교육, 농업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수원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향후 예견되는 캄보디아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각 원조에 대해 자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Project Sharing”방식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는 결국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로는 프랑스의 Sihanoukville 항구의 건설, 미국의 고속도로 건설, 프랑스와 독일의 철도건설등이 수송과 통신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아누크의 적극적 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 분야의 낙후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외화획득의 원천이 되는 주요 수출품목도 쌀과 고무에 국한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나. 론놀 시대 (1970~75)

론놀정권 당시의 전시상황은 각 부문에서의 생산과 수출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인구의 과다한 도시집중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폭동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송방해는 식량난을 가중시켰으며 마침내 1972년에는 쌀의 수확량이 1969년 수확량의 27%에도 못미쳐 일본과 태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야 하는 난관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내전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고무의 생산가공 시설도 크게 파괴되었으며 이외에도 과다한 재정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출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등은 캄보디아 경제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갔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론놀은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무역규제의 완화, 금융과 산업의 사유화 추진, 민간외자의 도입 등을 시행하였으며, 1971년 개혁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 투기, 암거래 등을 억제하고 통화의 안정을 이루기위해 수입관세의 인상, 은행금리의 인상, 유동환율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이러한 개혁조치를 금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World Bank, IMF, ADB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론놀 정부의 경제정책도 결국 식량과 생필품등 민간소비재 확보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최소한의 자급자족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외국의 원조에 무차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1970년 캄보디아는 폭등하는 군비와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군사 및 경제원조를 공식 요청하였고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최대의 공여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 문화 재건사업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시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나라가 캄보디아 긴급구호원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원조수요는 원조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1975년 국가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으며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 품으로 겨우 연명해 나가는 비참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다. 크메르루즈 시대 (1975~1979)

크메르루즈의 경제는 소규모 지역 산업과 결합한 강력한 농업정책에 근거하고 있었다.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시켰으며, 전인구를 강제 노역단위로 재편성하여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하였다. 또한 외국에 대한 반감이 강해 자국내 외국인의 주둔을 불허하였으며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UN총회에서 공공연히 표명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크메르루즈는 중국이외의 국가로부터는 뚜렷하게 원조를 받은 것이 없었다.

당시 이러한 중앙통제적 경제구조는 쌀과 면, 고무, 바나나 등의 재배농장을 상당히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농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산업발전의 측면은 거의 무시당하고 있었다. 또한 크메르루즈의 수상 Ieng Sary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따르지 않고 역사상 초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캄보디아의 경제정책은 사유지와 통화가 전혀 없고 오직 배급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극단적인 체제를 채택하였다. 그결과 캄보디아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화, 가게, 우체국 등이 없는 암흑의 도시가 되었으며 도시지역의 급수와 전기공급마저 원활치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경제상황은 수치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우며 다만 비공식인 소식통에 의해 많은 주민들이 불균형 배분으로 인해 기아와 영양결핍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사정은 1978년말 베트남이 침공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어 1979년 캄보디아는

또다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다.

라. 1980년 이후

(1) 정책방향

1980년 이후 헝삼린 정부와 반 폴포트 정치기구인 Kampuchean National United Front for National Salvation(KNUFNS)의 지도자들은 급진적이고 원칙위주였던 폴포트 정권에 대응하여 실용적, 현실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경제정책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경제속에서의 시장경제개념을 도입하면서 은행·통화제도·상거래 원칙의 복원, 강제노역의 폐지, 근로기준시간 설정, 성과급에 따른 급여제도의 확립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펴 나갔다. 당시의 민간부문 확대정책은 또한 캄보디아의 주요 생산분야인 농업에 있어서 자영농의 확충, 정부의 추곡수매 실시등 일련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기여하였다.

1981년 KPRP의 제4차 당무회의에서는 캄보디아 경제가 국가경제(State Economy), 집단경제(Collective Economy), 가계경제(Family Economy)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부문별로 국가경제발전에 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경제에서는 대규모 농업, 산업생산, 수송 및 통신망, 재정, 국내외 상거래등을 담당하고, 집단경제에서는 농업복원, 수산업, 임업, 수공업의 개발사업을 다루며, 가계경제에서는 소작농의 가계, 소매업, 점포의 운영, 기타 개인사업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경제정책을 분류하였다. 한편 동년 제정된 신헌법에는 대지와 자연자원을 국가에서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인에게 사용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이헌법은 자유상거래와 경제행위로 인한 수입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어 민간의 소자본 운용을 자극함으로써 많은 개인 점

포와 소규모 공장들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당시 캄보디아의 경제정책변화는 1980년대 경제재건정책에 밀거름이 되어 왔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제도적 정비작업이 계속되어 1986년에는 공공경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도입이 필요함을 자각한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정책에 민간경제를 제4부문으로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6~90)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84년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제기획 총수가 면담한 자리에서 동계획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발주한 동계획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농·임업생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식량, 고무, 어업, 목재 등 4개 분야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량문제에 있어서의 당초계획은 연간식량생산량 증가율 7% 선과 인구증가율 2.8%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목표는 계획 초반기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동계획에는 1990년까지 고무농장을 5만ha까지 늘려 연간 5만톤의 유액을 생산하고 20만m³의 목재, 1만5천톤의 황마, 13만톤의 어획량 획득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은 산업생산에 대한 가시적인 추진계획의 부재로 전력생산의 증가외에 뚜렷한 실적이 없었으며 단지 기존 생산시설의 복원과 캄보디아 실정에 적합한 중소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머물렀다. 반면 상품의 유통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동기간동안 거의 전부문에 걸쳐 상거래단위가 자리를 잡고 거래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건설에서도 경제 및 군사목적으로 통신망, 도로, 급수시설, 내륙수로망, 철도망등을 상당부분 재건 또는 신설하였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또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과 저축”이라는 경제

슬로건을 내걸고 농림업 상품을 주축으로 한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경제와 지하경제의 발달로 파생된 잉여 통화량의 흡수, 긴축재정 및 민간저축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행삼린 정부는 이와같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임 통치자 시아누크나 폴로트와 마찬가지로 자립과 자존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적으로 캄보디아의 취약한 경제구조는 외국의 원조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베트남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협력에 주로 의존하면서 추진되어 갔다.

2. 최근 경제상황

가. 거시경제 현황

캄보디아 경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화 조치에 힘입어 제법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으나 아직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일단 내분으로 말미암아 주요 산업부문에서 1960년대 후반의 생산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1991년 현재 1인당 GDP \$180의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생필품의 공급부족은 캄보디아의 경제회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제도와 행정력 부재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제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경제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난국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중단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통화팽창에 의해 충당되고 있어 지난 몇년동안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으며 경제통계의 미비와 경제관료의 거시경제적 행정능력 부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

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과 같은 물질적 원조 이외에도 거시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지표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제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추정된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경제현황분석에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캄보디아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우선 경제성장율면에서 1989년과 90년 기간동안의 침체를 벗고 1991년 약 13.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동 기간중 홍수에 의한 재해와 소련의 원조중단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성장으로 평가되며 대부분 경제개혁정책과 개선된 안보상황, 외국과의 교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물가상승율은 1988년까지 10% 미만에 머물렀던 것이 1989년 48%, 1990년 무려 150%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가폭등 추세는 1991년 들어 다소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133%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였으며 분기별로도 고른 상승율을 보여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공식화폐 CR(Cambodian Riel)의 대 달러 환율은 1988년부터 92년기간중 110CR에서 1,500CR로 급락했으며 1993년3월 확인된 시장환율은 무려 2,000CR에 이르는 매우 불안정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과 환율불안정의 주요원인이 되어온 공공지출은 1980년대 평균 세입의 약 50% 내지 100%의 초과지출을 나타냈으며 특히 1989년에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재정적자 지원금이 GDP의 1%를 초과함으로써 GDP의 9%가 공공지출 부문에 투입되는 과잉지출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군비증강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입과 외국의 원조감소로 공공지출의 총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재정적자 지원의 폭은 1990년 GDP의 3.3%, 1991년 3.5%로 오히려 급증하였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캄보디아의 GDP 증가율을 다음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비교적 빠른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매우 불안정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 캄보디아의 경제성장 추이(1986~91)

(단위 : 1984년 기준, 백만 CR)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GDP총액	18,437	19,774	21,593	23,752	26,128	26,922
(성장율, %)	(3.7)	(7.1)	(9.4)	(10.0)	(10.0)	(3.0)
농업부문	8,419	8,312	8,720	8,810	8,731	10,236
(성장율, %)	(-)	(-1.3)	(4.9)	(1.0)	(-0.9)	(17.2)
산업부문	3,948	4,869	5,616	6,338	6,183	6,713
(성장율, %)	(-)	(23.3)	(15.3)	(12.9)	(-2.5)	(8.6)
서비스부문	4,601	3,145	4,792	4,209	4,288	4,764
(성장율, %)	(-)	(-46.3)	(52.4)	(-13.9)	(1.9)	(11.1)

자료 : Contemporary Southast Asia Volum 14 NO 3, 1992.12,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표 IV-2〉 소비자 물가와 환율변동 추이(1988~92)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소비자물가상승율(%)	-	60	210	200	177
대달러환율 ¹⁾ (\$: CR)	110	159	315	700	1500

주 : 1) 1993년 3월 현지확인 시장환율 CR 2,000 : \$1

자료 : EIU Country Report NO 1, 1993

다. 무역과 대외채무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무역행위를 통제해 왔다. 1979년 상무성이 설립한 무역청(Kampuchea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 KAMPEXIM)이 수출입과 원조업무를 일괄 담당해왔으며 1980년 설립된 수출입은행(Foreign Trade Bank)은 대외지불, 수출지원대출, 외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의 무역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무역대상국도 당초 베트남, 소련, 동구유럽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점차 대 서방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무역품목으로는 우선 수입의 경우 기계류, 트랙터, 자동차, 연료, 경공업의 생산재, 생필품, 의류, 시멘트, 화학비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품은 주로 고무원액, 담배, 콩, 옥수수, 목재, 수공업품등이다. 한편 무역수지는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면서도 뚜렷한 증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외채무의 누적도 점점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표 IV-3〉 무역 및 대외채무 현황(1988~92)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8	1989	1990	1991
무 역 수 지	-95	-91	-100	-153
수 출	32	44	40	25
수 입	127	135	140	178
대 외 채 무 ¹⁾	717	-	900	1,000

주 : 1) OECD 추정자료

자료 : EIU Country Report NO 1, 1993

〈표 IV-4〉 주요 무역대상국

(단위 : 천불)

수 입 국	1983	1984	1985
동 독	234	129	175
프 랑 스	1,585	806	1,342
영 국	1,251	852	608
이 태 리	163	1,250	421
소 련	91,219	93,887	109,546
스 웨 덴	148	239	569
미 국	2,485	1,126	13
일 본	3,475	5,207	1,748
호 주	967	1,145	1,237
뉴 질 랜 드	331	717	520
계	102,151	105,809	117,176

수 출 국	1983	1984	1985
동 독	2	—	—
영 국	278	97	99
이 태 리	119	59	—
스 페 인	46	16	—
소 련	5,398	6,418	10,897
터 키	50	224	593
스 웨 덴	6	61	17
미 국	80	125	358
일 본	423	273	364
호 주	11	33	22
계	6,415	7,307	12,355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 Ltd.

3. 자원현황

가. 자연자원

(1) 금속광물

캄보디아의 광물자원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그동안 탐사실적을 보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중국 전문가의 탐사에 의해 Kampong Thum 지방내에 경제성이 뛰어난 약 5.2백만톤이 철광이 발견되었으며, 12만톤에 달하는 망간의 매장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서방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약 2.5내지 4.8백만톤의 양질의 철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량의 인산, 석회석, 점토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Kampot 지방에서 수천톤의 인산만이 채광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소금과 석탄의 매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발단계에는 못 미치고 있다. 보석류로는 루비, 사파이어, 지르콘 등이 19세기 후반부터 Ba Kev, Stoeng Treng 지방을 중심으로 채광되어 왔으며 약간의 금과 은이 전국적으로 산재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력자원

캄보디아의 수력발전 잠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Stoeng Treng, Kracheh 지방을 가로지르는 Mekong강 중류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 북동부, 북중부 지방의 고원지대의 강줄기도 규모는 작지만 개발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저장량이 매우 큰 Tonle Sap호수의 경우 물의 흐름이 적어 오히려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수자원의 용도는 수력발전보다는 농업용 관개용수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의 우선순위에 의해 수력발전개발은 다소 부진한 편이다.

(3) 석 유

1969년말 캄보디아는 프랑스 석유회사에 태국만 탐사권을 제공한 바 있으나 1972년까지 발굴실적은 없었으며 크메르 공화국이 멸망하던 1975년에는 탐사활동마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태국만과 남지나해를 중심으로 석유와 가스가 발굴됨으로써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석유 탐사 계획이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현재 27개의 광구에서 석유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 18개는 해안지역에, 나머지는 9개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4) 임산자원

국토의 약 70%가 산림으로 덮여있는 캄보디아는 임업이 농업 다음가는 주요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약 13백만 헥타이상의 지역이 산림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이 열대림이고 활용도가 높은 티크재나 떡갈나무 종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수차례의 전쟁과 내전을 통해 풍부했던 산림자원도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규모는 정확치 않으며 활용면에서도 지방의 열악한 안보환경, 장비와 전력의 부족등으로 인해 임산자원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주요 임산물은 원목과 장작으로 원목의 경우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주력 4품목중 하나로 선정되어 1990년까지 연간 20만 입방미터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 노동자원

캄보디아는 아시아국가중 인구나 인구밀도가 매우 적은 국가군에 속한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총인구는 7.4백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

며 인구밀도도 평방킬로미터당 36명에 불과하여 베트남이 187명인데 비해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인구 구성면에서는 15세 이하가 전인구의 34.5%, 62.5세 이상이 3%이며 경제활동인구는 총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약 3백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폴포트 정권동안 많은 기술인력이 처형되거나 국외로 탈출하여 극심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는데 실제로 1980년도 캄보디아 농업성의 기술인력의 수는 1975년 1,600명 보다 대폭 감소된 200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계속된 전쟁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인력이 전투 또는 군수관련 부문으로 전환됨으로써 캄보디아의 산업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국가경제의 재건을 늦추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986년 기준 경제활동 인구의 약 80%가 농업부문, 약 15%가 공공부문에 종사하였으며 제조업 분야는 겨우 1.6%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편 1990년 실업률은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부문별 고용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1986	1990 ¹⁾
농	업	1,364.1	1,545.0
공	업	27.2	37.3
건	설	10.2	15.6
수	송	10.2	15.6
상	업	39.2	48.9
공	공 부 문	254.1	293.4
총	계	1,705.0	1,955.8

주 : 1) 계획인원

자료 : EIU Country Profile 1992~93.

V. 부 문 별 현 황

1. 농림수산업

가. 농 · 축산업

(1) 현 황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자료를 토대로 GDP의 약 45%, 총고용의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면에서 캄보디아는 약 2.5백만ha의 경작 가능한 토지와 63만ha의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70%정도가 생산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토지의 황폐, 비료와 농약의, 관개시설의 낙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줄거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토지 복원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농촌의 호황기였던 1960년대에 비해 경작지의 면적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기존 경작지에 대해서도 노동력과 작업용 가축의 부족으로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농산물 가격의 통제, 불합리한 세제등이 농민들의 생산의지를 위축시키는 한편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제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조세율과 제도를 설정하는데 실패했는데 1984년 개정된 농산품에 대한 세제는 “애국적 기부”라는 명분을 내세워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조세로 거두어 군비에 충당했으며 1989년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해 농민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 주요 농산물로는 쌀 이외에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땅콩, 콩,

깨, 고무 등이 있으며 특히 고무는 쌀 다음으로 상업성이 강한 작물로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고무의 생산 역시 전쟁중 극심한 피해를 입은 데다 복원작업도 더디게 진행되어 1986년 생산량이 1965년 5만톤(5만ha의 경작지)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24,500톤(3만6천ha의 경작지)에 불과하였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1985년부터 고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이 소련에 의해 수입되어 왔다. 최근 캄보디아의 농업생산량 수준은 자급자족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는 식량부족 현상까지 보이는등 불안정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V-1〉 연도별 쌀 생산량(1986~91)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생산량(천 톤)	2,000	1,814	2,400	2,200	1,700	2,400
경작지(천헥타)	1,525	1,428	1,801	1,700	1,460	1,800
단위면적당생산량(톤/헥타)	1.31	1.27	1.33	1.30	1.16	1.33

자료 : EIU Country Profile 1992~93

〈표 V-2〉 주요 식량작물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1987	1980	1984	1988	1992
옥 수 수	149.5	122.7	59.3	46.9	70
근채작물 ¹⁾	35.8	369.0	81.7	77.9	80
유질성작물 ²⁾	63.1	14.2	35.6	36.9	76
채 소	430.0	282.8	139.9	266.5	—

주 : 1) 고구마, 카사바 등 포함

2) 콩, 깨, 땅콩 등 포함

자료 : 상동

〈표 V-3〉 연도별 고무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1982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생 산 량	7.5	12.0	17.7	24.5	25.0	31.0	34.7	32

자료 : 상등

한편 축산업 역시 캄보디아 경제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축산업만 별도로 주업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농민들이 농사활동과 연관하여 사육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작업용 가축인 들소와 황소가 논농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1967년 1.2백만두에 이르렀던 작업용 가축이 1979년에 이르러서는 77만두로 대폭감소 됨으로써 농업촉진 정책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9년부터 1987년 기간동안 이 숫자는 다시 현격히 증가하여 소와 들소의 수가 무려 3배나 증가하는 총 2.5백만두가 사육되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돼지의 숫자도 1.4백만두로 증대되었다.

〈표 V-4〉 연도별 주요 가축의 수 (1987~89)

(단위 : 천두)

구 분	1987	1988	1989
말	14	15	16
소	1,837	1,950	2,000
들 소	687	700	730
돼 지	1,434	1,500	1,550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

〈표 V-5〉 주요 축산가공품 현황(1987~89)

(단위 : 천톤)

구 분		1987	1988	1989
우	육	17	17	18
들 소	육	9	10	10
돈	육	24	24	25
계	육	21	22	23
우	유	17	17	17
계	란	10.5	11.5	12.0
피	혁	5.4	5.5	5.9

자료 : 상동

(2) 농업생산단위

1979년 헝삼린 정권수립이후 캄보디아의 농업활동은 “Krom Samaki”라 불리는 공동체작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공동체 작업은 폴포트 정권하에서 생겨난 강제노역집단을 개선한 것으로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집단을 결속하여 공동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주로 15가구 단위로 구성되는 Krom Samaki는 대략 10내지 15ha의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투입된 노동량(작업용 가축포함)에 따라 생산량을 분배하는데 생산량은 그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생산량의 일부는 복지차원에서 따로 적립해 놓기도 하고 세금과 같이 국가에 대한 의무로 납부되기도 하였다. 한편 각 가구는 공동작업외에 1,500내지 2,000㎡의 토지를 별도 제공받아 경작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86년에는 지방인구중 97% 이상이 약 10만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

는데 이후 가구별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공동체의 성격도 공동작업의 정도와 토지사용권의 형태에 따라 3개의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첫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유형으로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전 작업과정에서 공동작업을 요구하는 강한 결속력을 지녔으며 경작대상도 정부제공 토지뿐 아니라 개인 농장에 대한 소작까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두번째 유형은 다소 개인화된 공동체 작업으로 여기서는 토지를 각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면적을 배분한 뒤 힘든 작업에 대해서만 공동작업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세번째 유형은 농절기 시작과 더불어 토지를 분배하고 농사에 대해서는 각가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수확물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권한을 가지며 단지 운영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만 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느슨한 결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의 운영은 캄보디아 정부가 농업의 복원을 위해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한 제도였으나 실제로 별 효과를 보지를 못하였다. 1980년대 중반 캄보디아의 한 정부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공동체중 약 10%정도만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70%와 20%는 각각 위에 언급한 두번째 유형과 세번째 유형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가구단위에 의한 농사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나. 임업

목재는 캄보디아 경제의 두번째로 중요한 수출품목일 뿐아니라 연료로서도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생산량은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벌목후 산림복원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황폐화와 더불어 임업생산량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림의 적절한 보호정책은 임업뿐 아니라 농농사와 민물 수자원을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캄보디아의 무차별적인 벌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7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절반가량이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0, 80년대의 과도한 벌목과 전쟁으로인한 복원작업의 지연은 매년 약 30만ha정도의 산림을 황폐화시켰다. 그결과 1991년 잔여산림은 7.5백만ha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후에도 공식화된 벌목만 해도 다음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불법으로 행해지는 벌목도 상당량에 달해 통계자료의 미비를 감안하더라도 1991년 한해의 벌목량이 환경기준치의 약 5배에 달하는 1백만m³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의 황폐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과 홍수등의 한 원인이 될 뿐아니라 캄보디아 식생활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민물고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명백해짐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관계자들은 1989년 베트남의 철수와 1990년 소련의 원조중단, 기타 소득원의 감소추세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 못이겨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다. 1992년에 들어서는 UNTAC의 지휘를 맡고 있던 Yasushi Akashi가 캄보디아의 급속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대변하여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SNC를 제외한 타 정치단체들은 재정적 곤란을 내세워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형태의 금수조치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V-6〉 연도별 원목생산량

(단위 : 천 m³)

연 도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생 산 량	97	120	167	288	218	320

자료 : EIU Country Profile 1992~1993

〈표 V-7〉 1992년도 원목수출현황

(단위 : 천 m³)

수 출 형 태	수 출 량
SOC 공식수출	320
SOC 대베트남 불법수출	250
SOC 대태국 불법수출	200
PDK 대태국 수출	200
FUNCINPEC 대태국 수출	128
KPNLF 대태국 수출	50
총 계	1,148

자료 : 상동

다. 수 산 업

캄보디아인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중 약 70%에 해당하는 양이 어류로부터 얻어지며 어획량의 약반 정도가 Tonle Sap 호수로부터 공급된다. 캄보디아인들은 어류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 또는 각종 양념을 통해 요리하는데 채소류를 제외하고는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수산업은 1980년대 초반 외국의 원조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그 수치를 보면 1979년 민물고기의 어획량이 15,000톤에 불과했던 것이 1982년에는 무려 4배가 넘는 68,700톤에 이르렀다. 이후 1986년까지 6만톤을 약간 웃도는 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며 동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990년까지 어획량 13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들어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Tonle Sap 호수의 침전현상에 따른 어류 서식처와의 파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상어획량은 전통적으로 극히 부진하여 민물어획량의 10%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표 V-8〉 어 획 량(1984~86)

(단위 : 천톤)

	1984	1985	1986
민물어획량	59.5	62.0	63.5
해상어획량	5.5	6.0	6.5
총 계	65.5	68.0	70.0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

2. 산 업

가. 일반현황

캄보디아의 산업수준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 1992년 기준 GDP의 약 12.7%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1969년 19%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쌀, 어류, 목재, 고무 등 농수산물 생산물의 가공산업에 집중되어 전산업 부문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주요산업으로는 화학, 기계, 전기, 섬유 등이 비교적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의 규모도 평균 고용인 200명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로 현지 수요를 겨냥한 생필품의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산업재건의 수요는 전쟁전후의 산업규모의 비교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가 전쟁의 역사에 휘말리기 전인 1969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는 전국적으로 18개의 대규모 산업체(13개의 공공부문과 5개의 공사합동 부문)와 3만3천개의 민간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들 공장중 약 절반은 정미소 또는 기타 쌀가공과 관련된 공장들이었다. 반면 1985년에 들어서는 56개의 공장만이 복원되어 가동중에 있었으며 수도 프놈펜의 경우도 공장 가동율이 50% 정도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산업재건에 있어서의 장애요소는

전력의 부족, 생산 원료와 부품의 부족, 수송·통신시설의 미비, 기술인력의 부족, 신용체제의 미확립, 국제시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인식부재등으로 산업개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정책면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산업이 국영체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는데 점차 민간부문의 동기부여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새법안을 통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소유를 100% 인정하는 등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캄보디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사고에는 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문제, 내수시장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제고, 수입대체산업의 개발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등한시 되어 왔으며 그로인해 아직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미약한 실정이다.

나. 주요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1986년 초반 프놈펜에는 6개의 섬유공장, 4개의 발전소, 청량음료공장, 담배공장, 철근콘크리트공장과 수 개의 생필품공장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전력부족으로 가동율은 상당히 저조 하였다.

또한 Kampong Sam시와 Kampot 지방에는 정미소와 목재소, 벽돌 및 타일공장, 정유공장, 트랙터조립공장, 시멘트공장, 인산비료공장, 어류가공공장 등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Ta Khmau와 Kampot 지방에는 타이어공장, 기계제련소, 창고등이 다수 설립되어 있었다. Batdambang 지방에는 농기구수리공장, 면·섬유 가공공장, 황마부대(bag)제조공장, 자동차 및 트랙터 수리공장, 인산비료공장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면의류와 담배생산의 중심지였던 Kampong Sam 지방에는 면과 실크 가공공장,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공장 등이 설립되어 있었다.

다. 가내수공업

직물과 양재를 주로하는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수공업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율을 보이면서 그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복원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1984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공업 부문의 생산량이 총 산업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렀다. 동년 수도 프놈펜에만도 1,840개의 수공업체가 있었으며 이들의 생산량은 1981년 14백만 CR에서 1984년 50백만 CR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9〉 1988년도 제조업 생산실적(1970년대 초반)

품 목	생산량(백만CR)	공공부문비율(%)	민간 및 수공업 부문비율(%)
담 배	1,064.5	67.6	32.4
섬 유	255.4	100.0	0.0
화학(고무가공포함)	213.2	13.7	86.3
기 계	138.4	39.2	60.8
경공업	90.2	33.8	66.2
건 설	45.6	31.2	68.8
수 송	23.8	9.9	90.1
전 기	4.5	100.0	0.0
계	2,518.3	—	—
(기타 생략부문포함)			

자료 : EIU Country Profile 1992~1993.

〈표 V-10〉 제조 품목별 생산량

구 분	1971	1972	1973
증류주(10만리터)	45	55	36
맥 주(10만리터)	26	23	18
청량음료(10만리터)	25	25	25
담 배(백만갑)	3,413	2,510	2,622
면 사(톤)	1,068	1,094	415
자전거 타이어 및 튜브(천개)	208	200	200
고 무 신(천켈레)	1,292	1,000	1,000
비 누(톤)	469	400	400
자동차연료(천톤)	2	—	—
정 제 유(천톤)	11	—	—
연료용 중유(천톤)	14	—	—
시 멘 트(천톤)	44	53	78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 Ltd.

3. 수송 · 통신

가. 수 송

전쟁과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수송관련 사회간접자본은 크게 손상되어 있으며 평화시의 개발계획 자체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송간접자본의 미비는 원활한 구호활동 또는 일반지원품의 전국적 분배과정을 어렵게하고 있어 시급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존 수송시설에 대한 복원은 주로 구소련의 원조에 의해 행해져 왔다.

(1) 도 로

대부분의 캄보디아 도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서 1992년말 통계에 의하면 총 도로길이가 14,800km로 이는 1969년 보고된 19,480km 보다 오히려 크게 감소된 수치였다. 더구나 통행에 불편이 적은 포장도로의 경우 총길이의 20%에 불과하며 50%가 비포장 자갈길, 나머지 30%는 전혀 정비가 되지않은 자연로의 상태로 남아있다. 1981년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과 베트남 국경을 잇는 주요도로인 국도 1번을 일부 보수했으나 태국 국경지대의 캄보디아 난민과 연결되는 국도 5, 6번은 아직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100개의 교각이 끊어지거나 파손되어 있어 수송문제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강을 왕복하는 선박의 경우 수요가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수송여건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재정의 극심한 압박으로 말미암아 도로의 건설이나 보수작업의 긴급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육상교통에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량의 부족과 차량유지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부족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V-11〉 자동차 보유현황 (1971~73)

	1971	1972	1973
승 용 차	26,400	27,200	—
상 용 차 ¹⁾	11,100	11,100	11,000

주 : 1) 트랙터 제외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Europa Publication Ltd.

(2) 철 도

캄보디아의 철도 시스템은 프놈펜을 시발점으로 2개의 주요노선이 설립되어 있으며 총길이 612km의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의 철도는 프놈펜과 태국 국경지대인 Paoy Pet을 잇는 338km의 노선으로서 1929년부터 1942년에 걸쳐 프랑스에 의해 건설되었다. 또한 1960년부터 1969년 기간중 프랑스, 서독, 중국의 원조에 의해 건설되었던 두번째 철도는 프놈펜과 Kampong Sam을 연결하고 있으며 총길이는 274km이다. 철도의 운행은 전쟁기간중 거의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초 재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철로 상태가 온전치 못해 아직도 정상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의 운송현황은 호황기였던 1969년 일일 운행량이 30회였던데 비해 5회에 불과하며 동년대비 화물수송은 20%로, 여객수송은 75%로 각각 감소하였다.

(3) 수운 및 해운

Mekong강과 Tonle Sap강, 또한 이들은 근원지로 전국적으로 펼쳐있는 지류하천들은 전통적으로 캄보디아 국내 상거래에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Tonle Sap강과 지류는 연중 이용가능한 3,700km의 수로를 확보하고 있어 농사 뿐 아니라 수송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육상수송이 불가능한 Mekong강의 서부와 Tonle Sap의 북부지방은 소형증기선, 범선, 거룻배 등이 쌀과 식량이 운송 및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프놈펜과 Kampong Sam이 두개의 주요 항구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5개의 소형항구가 있다. 프놈펜 항은 Basak, Mekong, Tonle Sap강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강 하구로서는 유일하게 대형선박(우기 8천톤급, 건기 5천톤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1991년에는 약 18만톤의 화물을 운송·관리하여 1960년대 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Kampong Sam은 캄보디아 유일의 해안항구로서 전쟁중 폐쇄되었

다가 1979년 다시 개항되었으나 1991년까지만 해도 최대수용량의 약 11% 정도에 해당하는 13만2천톤의 수용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현재 항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만입구의 준설작업이 우선 필요하고 이외에도 화물 적재시설과 장비의 부족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항 공

캄보디아에는 26개의 활주로가 있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이중 13개만이 운행가능하였다. 프놈펜 근방에 있는 Pochentong국제공항은 캄보디아 최대의 공항으로 민간수송 뿐 아니라 군용비행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983년말 캄보디아는 소련의 원조로 Kampong Sam 근방 Ream에 새 공항을 준공하였으며 이외에도 Siemreab와 Batdambang에 소규모 공항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1982년 설립된 Air Kampuchea는 프놈펜과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잇는 단일노선만 운행되었으나 1984년 프놈펜-하노이 노선이 개설되면서 점차 확장되어 1980년대말 현재 프놈펜발 하노이, Vientiane, 모스크바 노선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는 반면, 항공관제 시설, 통신시설, 활주로 조명 등 기본적 항공기술의 낙후로 항공망의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통 신

캄보디아의 우편, 전신, 전화는 체신·교통부의 관장하에 운영되고 있다. 1987년 소련의 도움으로 설립된 복수회선의 위성통신망은 프놈펜과 모스크바, 하노이, Vientiane, 파리 등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1990년에 와서는 프놈펜에서 국제자동전화와 Fax를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망도 캄보디아의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마찬가지로 전쟁중에 심하게 파손되거나 설비의 노후로 정상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안

정한 전력공급 역시 원활한 통신망의 유지를 어렵게하고 있다. 또한 통신망이 보급이 수도권에만 몰려있어 지방과의 유선연결은 전무한 상태이며 극소수의 무선기기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전국에 걸친 통신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기존 통신망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부품과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4. 에너지

캄보디아의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는 연료용 목재로서 1984년 기준 200,400m³의 연료용 목재와 10,600톤의 목탄을 생산했으나 (1969년 각각 327,500m³와 16,900톤 생산)공급의 부족으로 산업연료용 목재의 이용은 1980년대초 이후 정책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프놈펜의 연료용 목재사용량은 임업성 자료에 의하면 10만3천m³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통계수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발전량은 1979년 60백만Kwh에서 1988년 180백만Kwh로 대폭 증가했으며, 프놈펜에 있는 4개의 발전소외에 새로이 3개의 발전소가 소련의 원조를 받아 각각 Kampong Sam, Battambang, Siem Reap-Oddar Meanchey 지방에 건설되었다. 대부분의 원유공급은 1991년까지는 소련으로부터 세계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왔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태국과 싱가포르로부터 수입, 충당하고 있었다. 1990년 한해동안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연료용 원유는 약 13만5천톤에 달했다. 대부분의 생산전력은 산업용보다 민간용으로 주로 소비되는데 1인당 연간전력소비량은 26Kwh로 태국의 630Kwh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력의 공급지역이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력에 대한 관리행정도 미흡하여 전기요금 납입실적이 생산비의 20%에 불과하며 전력의 공급 역시 자주 중단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표 V-12〉 1991년도 에너지 현황

(단위 : 원유 백만톤 또는 상당)

구 분	원 유	가 스	석 탄	전 기	기 타	계
생 산	—	—	—	0.01	1.28	1.29
수 입	0.16	—	—	—	—	0.16
수 출	—	—	—	—	—	—
총 공 급	0.16	—	—	0.01	1.28	1.45
총 소 비	0.11	—	—	0.01	1.28	1.40

자료 : EIU Country Profile 1992~93.

VI. 현 안 과 제

1. 경제개혁정책

가. 개혁현황

1985년부터 시작되었던 시장경제구조로의 재편성 과정은 198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민간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국가와 민간간의 공사합동 프로젝트가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격통제에 있어서도 캄보디아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 전기, 시멘트, 철강, 비료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율화되었으며 1990에는 복수환율제도가 사라지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과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1989년 통과된 새법안은 재산상속권, 개인소유지에대한 건축권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복원시켰으며 농업용지의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해당 경작자에게 이양하였다. 또한 동년말 집단농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대신 개인 또는 가계단위의 농장이 캄보디아 농업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새로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순수외국자본에 의한 법인을 허용하고 있어 1992년 현재 5백만불내지 10백만불 규모의 프로젝트가 200여건 계류중에 있다.

1990년에는 공기업부문을 상당부분 자율화시켜 중앙계획통제에 의한 생산과 가격정책의 제한규정을 철폐하였으며 공기업의 민간화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부문과 5년부터 10년까지의 리스(Lease)형태의 계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화정책이 효율성면에서는 증진을 가져온 반면 지나친 감원으로 실업율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민간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여 1992년 현재 캄보디아 중앙은행, 산하 수출입은행 및 19개의 지방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립은행(Na-

tional Bank of Cambodia)외에 프놈펜 시민은행(Municipal Bank of Phnom Penh)과 4개의 외국합작은행이 설립되었으며 40개의 새로운 금융법인이 이미 인가되어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

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1~95)

1991년부터 행삼린 정부는 경제사회부흥발전에 관한 제2차 5개년계획을 실시중에 있다. 동계획은 시장경제하에서 농업, 운수, 공업, 관광 등 4개 분야의 부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쌀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난의 극복과 수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1989년도 257만톤이었던 미곡생산량(분말기준)을 1995년까지 400만톤으로 증산하고 1993년 미곡의 수출목표를 5만2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무, 잎담배, 목재등의 품목에 있어서도 수출확대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는 재정난이 개선될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동계획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약 70%를 외국의 원조와 차관도입으로 충당할 예정에 있다. 또한 계획수행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이 절대부족하여 기술자나 숙련노동자, 교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증설, 고등교육체제의 정비등 인력개발부문도 동계획에 우선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기획원(Ministry of Planning Department)에서 조사한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주요사업 소요예산의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VI-1〉 제2차 5개년계획 주요사업소요예산(드래프트)

(단위 : 백만불)

항 목	비 용
○ 인구조사	3.5
○ 농 업	230.8
- 댐(Bawel)건설	67.0
- 발전댐(Stung Jinit)건설	86.5
- 발전담(Banan)건설	77.3
○ 산 업	238.96
- 전력	194.7
- 시멘트 공장	30.0
- 비료공장	15.0
- 종이공장	18.26
- 설탕공장	26.0
○ 수송·통신, 기타	389.102
- 세부계획 수립	0.2
- 교각 및 도로	290.9
- 철로	25.5
- 수로 및 항만	31.222
- 항공	16.2
- 통신	15.08
- 도시개발계획	3.68
- 급수	10.983
- 보건기술지원	13.815
- 기타	28.66
총 계	954.5

2. 부문별 재건수요

가. 거시경제정책

최근 수년간의 개혁정책은 캄보디아의 경제를 시장경제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 생산량의 신장과 더불어 고용측면에서의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군비 및 경제개혁과정에서의 과다한 정부지출은 통화팽창을 통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야기시켰으며 마침내 국가재정의 조정작업을 시급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지출의 경우 군비와 같은 비생산부문에의 지출이 편중되고 그동안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조차 체불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정지출을 삭감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기본 공공업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현존 사회간접자본이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만도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구조의 불합리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수원의 확보와 조세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원유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고 건설, 호텔업등 외국인 투자가 증폭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세 항목을 도입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세수확보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삭감과 세수의 증가만으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에 대한 외국의 원조와 원조집행의 관리감독 기능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캄보디아 경제에 있어서 재정부문이 강조되는 것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자율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캄보디아의 거시경제정책과제는 이외에도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한 금리의 합리화, 공기업 부문의 활성화, 국제무역의 자율화, 기업·투자

관련법의 재정등 여러부문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농림수산업

농업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소유에 대한 정책적 개혁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마케팅정책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농기구, 비료, 농약등 농사에 필요한 원료와 자금지원 차원에서의 신용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용 가축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염병 예방, 번식 및 사육 프로그램의 개발등이 필요하며, 임업에 있어서는 벌목 통제와 산림자원의 보호, 벌목 폐해지역에 대한 조림작업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Tonle Sap호수 주변지역의 조림작업과 준설작업은 캄보디아 어획량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민물고기의 서식처를 확보해 주는데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 원조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 농촌에는 전쟁으로 가장을 잃고 여자혼자 이끌어가는 가구가 많이 있어 이들을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긴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1992년에는 특히 쌀의 생산이 수요량보다 15만톤이나 모자라 긴급식량원조를 필요로 했으며, United National Children's Fund(UNICEF)는 식량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Family Food Pro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별 소규모 경작, 가축사육, 양어장 운영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오랜 분쟁으로 인한 관리소홀과 1991년 급작스럽게 몰아 닥친 홍수로 말미암아 관개시설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 여파로 생산성이 격감하고 약 2만 ha의 농토가 건기중 경작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관개시설망의 확충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시급한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중기계획과 더불어 수송용 수로와의 효율적 연계방안, 민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DB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Tuk Chha, Stung Chinit, Kampong Sam

지역의 관개시설을 복원하는데만 12백만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무차별적인 벌목과 홍수로 인한 산림의 피해는 캄보디아 여러지역에 퍼져 있으며 특히 남동부지방에서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을 무시한 채광사업도 수로에 퇴적물이 쌓고 민물고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어 산림보호외에 생태계에 대한 보전방안도 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육·보건

기초 교육제도의 복원과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건물의 보수뿐 아니라 각종 교재의 확보, 교사양성 프로그램등의 추진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교육부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요건외에도 실험실의 확보, 기술고문의 초빙을 통한 기술연수 프로그램개발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기업부문의 지원과 기술수요에 입각한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고용증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부문에 있어서도 캄보디아는 전국각지의 병원시설의 복원, 의료기구 및 약품의 공급, 의료기술진의 양성등 인력, 시설, 물자의 모든면에서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약품중에서는 기초 의약품외에도 발생빈도가 높은 말라리아, 결핵, 나병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약이 원조 우선순위가 높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질병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4년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주사 보급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에 있다. 이외에도 지방주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물, 수동펌프의 확보와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도 캄보디

아 보건문제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라. 수송·통신

최근까지 캄보디아 도로복원 과정은 난민들의 송환을 목적으로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되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단계적 추진방안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캄보디아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 5, 6번의 경우 표면이 매우 손상되어 있어 시급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수작업에 필요한 국내의 기술노동력, 건설장비, 부품, 연료, 아스팔트용 원료 등도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DB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도 5, 6번의 파손된 부분을 단순히 땀질하는 작업에 투입될 인력, 장비만도 17백만불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ampong Sam, 프놈펜항과 여러 군소항구에도 시설복원뿐 아니라, 창고 시설, 화물처리장비, 기술인력의 양성등 여러 현안과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관제와 지상안전 및 통신시설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국제항공 관제요원의 양성과 조명시설, 이착륙 인도기능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와 항구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증가되는 수송량과 범국가적 수송정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과제로서 설비의 민간화, 운임 및 연료가격의 조절기능등 시행단계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도 다수 산재해 있어 정책적 자문에 대한 원조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 문제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우선 전국 모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통신기술 및 인력양성과 기존설비복원의 지원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캄보디아 통신시설 재건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국제통신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ITU)이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

한 자료로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마. 에너지 · 급수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우선 주요 도시지역인 프놈펜, Batdambang, Kampong Sam등에 전력공급체계의 관리및 유지를 위한 지원, 즉 장비및 부품의 조달, 전문경영인과 전기기술자의 양성, 전기대금 수납행정체계의 개선문제 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력의 공급을 늘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가정 또는 공장용 수력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방안등이 국제원조기관을 통해 적극 고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력공급체계의 복원은 산업부문의 재건계획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원조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지역의 급수시설의 급수시설도 긴급한 보수작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들 세지역의 급수시설을 최소한도로 유지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12백만불의 장비및 부품, 인력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 난민의 송환과 재정착 문제

태국 · 캄보디아 국경에 산재해 있는 난민에 대한 송환문제는 지뢰의 매물, 집단강도,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분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수송에 필요한 사회간접자원의 미비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로 되돌아올 난민의 반 이상이 도시근처 난민촌을 떠나서는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생활로의 정착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에서 계획하고 있는 캄보디아 난민송환 프로그램은 9개월동안 84백만불의 자금으로 주당 1만명의 난민을 송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주에 적합한 안전한 농장지역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난민들이 정착

을 희망하는 4개의 북서부지방 즉 Batdambang, Banteay Meanchey, Pursat, Siem Reap지방에는 지뢰가 없는 안전지대가 총 면적의 7%에 해당하는 1만1천ha에 불과하여 이들의 안전한 정착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UNHCR에서는 난민 가구당 자급자족의 최소규모인 2ha의 농토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건축자재, 기본 생필품등을 제공하고 있다.

난민 송환문제와 더불어 제대군인의 정착도 캄보디아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UNTAC Implementation Plan은 소기업 개발, 즉 소규모기업의 생산, 회계, 예산, 마케팅부문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비용뿐 아니라 교육기간 동안의 숙식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에는 전국적으로 18만명이 전쟁중 생활터전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중 약 40%는 난민촌에 수용되고 나머지는 친인척에 얹혀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소도 역시 안전과 지뢰문제이며 이들이 정착할 때까지 보건, 급수, 식량, 주거등 다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 행정력의 제고 및 공공부문 재정지원

캄보디아에 대한 복원 및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경제구조의 개혁, 재원의 적절한 배분 및 활용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개혁 및 기획, 재정정책, 민간화를 포함한 기업부문의 개혁등이 우선순위가 높으며, 좁게는 정부의 회계관리 및 통계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CMEA)국가들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1980년대발부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협력 수요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의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원

조수요는 인력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집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원조수용능력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여국은 특정 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 또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병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캄보디아의 재정은 인플레이션과 공공재원 부족이라는 양면적 압박을 받고 있으나 단순히 정부지출만을 줄일 경우 경제재건계획의 원동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악순환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우선 경제재건에 기본이 되는 공공임금과 공공서비스관련 비용,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오히려 더욱 늘려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조자금에 의한 재정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금지원외에도 식량이나 원유같은 공공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자지원도 결국 재정절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이나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2년 현재 모든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은 UNTAC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

VII. 개 발 원 조 현 황

1.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적 논의

캄보디아의 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폴포트정권이 몰락하던 1979년부터 고조되기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소량의 원조만 국제기관으로부터 공여되는데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1982년 폴포트정권의 후유증으로 인한 긴급사태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자 개발차원에서의 NGO를 포함한 국제적 원조가 제법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까지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CMEA 국가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원조에 참여하였다. 또한 국제기구로서는 UNDP, UNHCR, UNESCO, FAO, Mekong Committee 등과 미국의 USAID, 각종 NGO 단체들이 캄보디아 복원과 경제개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1991년 10월 23일 파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재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이후 대 캄보디아 원조는 한층 더 공식화되고 다국간 협조체제를 토대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제4항에 명시된 것처럼 파리선언은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를 서로 결합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동 선언은 또한 UN 사무총장에게 UN이 산하기구를 통해 캄보디아 복원계획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1993년 캄보디아 총선후에 보다 조화로운 개발 원조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결성될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ICORC)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2년 4월 UN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견해로서 캄보디아 재건계획의 총 소요비용이 594.76백만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재건노력은 1992년 6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원조국회의에서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동 회의에는 파리선언에 참가했던 19개국과 유

럽 및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참석하였으며, 국제기구로서는 ADB, FAO, UNDP, UNESCO, ILO, IMF, UNHCR, UNICEF, IBRD, WHO, WFP, UNTAC등이 참가하였다. 회의결과 참가국 및 기관들은 향후 2년간 캄보디아 재건계획에 소요될 총 금액이 당초 UN이 제시했던 6억불보다 훨씬 증대된 8.8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이 1.5 내지 2억불, 미국이 1.3억불, 프랑스가 0.57억불, 호주 0.4억불 싱가포르 0.1억불을 원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또한 동 회의에서 결정된 원조방침은 UN의 원칙에 따라 UNTAC을 통해 조정되고 캄보디아측 수원기구는 SNC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경회의의 또 하나의 결실로는 ICORC의 창설에 대한 한단계 진전인데 그 내용은 일본을 의장국으로 하고 동경과 파리를 오가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총선후 새로 탄생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기획과 재건 프로그램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지원기능을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동 회의에서는 캄보디아의 재건과 평화에 관한 두가지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그 첫째로 재건에 대한 선언은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원조는 파리 선언에 입각해서 실시하고 재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캄보디아인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주체적 입지를 고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화에 대한 선언은 우선 1993년 전반까지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속에서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캄보디아 각 계파가 파리 평화협정을 준수해 줄 것과 UNTAC의 충실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재건계획이 총선후 캄보디아 통합정부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2. 원조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재건(Reconstruction)계획이 총선후 장기적 안목에서 캄보디아 경제사회발전을 목표로 시행되는 반면 복원(Rehabilitaiton)계획은 시급한 원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

로서 이미 NGO와 UN 산하기구, 국제원조기구등을 통해 계속 수행되어 왔다. 복원계획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전쟁으로 폐허가된 캄보디아인이 생활터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리선언에서는 식량, 안전, 보건, 주택, 교육·훈련, 수송,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복구, 전력및 급수시설의 개선등을 중점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IBRD에서는 우선순위 분야를 보건, 교육, 농업, 수송, 전기·급수등으로 구분하고 GDP 성장율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1992년 9%, 1993년 11%, 1994년 8.5%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소요비용은 연도별로 각각 72백만불, 120백만불, 162백만불로 산출되었으며 재원의 확보는 원조를 통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UN 사무총장이 파리선언에 입각해서 향후 2년동안 캄보디아 복원 및 재건계획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언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5개 분야의 세부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다.

○ 송 환

태국 캄프로부터의 난민 수송, World Food Program(WFP)의 식량원조 프로그램등

○ 정착지원

국내외 난민, 제대군인에 대한 생필품 공급

○ 기초 행정서비스의 유지

- － 식량안정 공급(취약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 관개시설 복원, 환경보호 등)
- － 보건·급수 프로그램(의료시설 복원, 기초의약품 공급,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지방의 식수공급등)
- － 교육·훈련 프로그램(초·중·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소규모기업개발 교육등)

○ 전기·급수 및 사회간접자본 프로그램

도로, 철도, 항만, 내륙수로, 항공, 통신, 전기보급, 도시급수, 연료 공급

망등 복원

○ 행 정

경제관리, 공공부문 재정지원, 행정능력 배양, 재외 전문인력 흡수, SNC
에 대한 기술원조

UN 사무총장이 발표한 이 내용은 결국 IBRD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두개의 방향, 즉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의 복원”과 “경제안정의 이룩”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야의 프로그램중에서도 특히 인력개발 부문이 강조되는 것은 캄보디아 자체의 적정인력 부족이 타 분야의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원조의 효율성 여부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3. 원조실적(총괄)

1990년 기준 DAC 가입국의 대캄보디아 원조총액은 28.4백만불이었으며, 주요 공여국으로는 미국이 5.0백만불, 호주가 4.3백만불, 호주가 4.3백만불, 네덜란드가 4.1백만불을 원조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는 총 13.3백만불로 주요기관으로는 UNICEF가 5.3백만불, WFP가 4.8백만불을 각각 원조하였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대캄보디아 원조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VII-1〉 대캄보디아 원조실적(1987~91)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정부개발원조(ODA)	14.2	18.5	30.3	41.6	90.9
- 양 자 간	8.9	9.8	17.8	28.4	49.8
상 위 5 개 국	스웨덴(2.1)	미 국(4.0)	미 국(5.0)	미 국(5.0)	네덜란드(7.8)
	미 국(2.0)	호 주(2.1)	호 주(3.9)	호 주(4.3)	독 일(6.7)
	호 주(1.6)	일 본(0.9)	스웨덴(3.1)	네덜란드(4.1)	미 국(6.0)
	프랑스(1.5)	스웨덴(0.8)	일 본(2.0)	독 일(3.6)	프랑스(5.3)
	필란드(0.5)	네덜란드(0.5)	프랑스(0.9)	프랑스(3.0)	호 주(4.8)
- 다 자 간	5.4	8.7	12.5	13.3	41.1
OOF	—	—	—	—	—
PF	0.0	0.0	-13.0	0.0	3.4
계	14.2	18.5	17.3	41.6	94.3

자료 : 해외경제협력편람, 해외경제협력기금(일본, 1993)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 OECD(파리, 1992)

4. 국별 원조현황

가. 구소련

1979년부터 1990년까지 구소련의 원조총액은 284백만루블로 이중 200만 루블이 캄보디아에 새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기아와 경제재건의 목적으로 집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1985년까지 공여된 44백만루블은 주로 의료와 교육시설의 복원, 트랙터와 트럭의 구입, 도로보수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40백만루블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원하는 데 쓰여졌다.

1980년대에 행해진 소련의 이같은 원조로 캄보디아는 전기, 농업, 보건, 교육, 수송, 통신 등 여러분야에 걸쳐 30개의 시설을 복원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프놈펜과 Kampong Sam의 발전소 건설이 가장 큰 프로젝트로 각각 1984년과 1985년에 완공되었다. 이외에도 500개의 병실을 갖춘 캄보디아-소련 친선의료센터, 기술교육원, Pushkin 러시아어학원, Chanka Dong 농경제학원, 품종개량센터, 철근 콘크리트 공장등을 건설하였으며 2만 ha의 고무농장과 연간 2만톤이 생산이 가능한 고무가공공장의 재건사업도 지원한 바 있다. 1986년 4월에는 지상통신위성본부, 가축병원, 트랙터 수리공장, Pracheachon 신문 인쇄소 건설등을 포함하여 여러 프로젝트의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농업과 수산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시행하였다.

한편 소련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캄보디아 학생을 대상으로 1,285건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술 또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원조는 1990년이후 자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대캄보디아 경제교류도 점차 경화거래의 무역위주로 전환되었다.

나. 베트남

베트남의 대캄보디아 원조현황은 양국이 다 자료의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관리들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은 캄보디아와의 친선우호조약의 일환으로 매년 최소한 25백만불 이상을 원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긴급구호가 필요했던 1979년과 1980년에는 각각 56백만불과 62백만불이 지원되었다.

베트남 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식량, 의료 및 교육지원 물품, 가정용 생필품, 버스등의 상용차로 구성되어 있고 원조수단에 있어서는 전문가파견이나

연수생초청 같은 기술협력을 위주로 한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캄보디아의 공식 언론보도에 의하면 1986년 한해동안 431명의 연수생이 베트남에서 기술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 파견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부처나 사무실 등에서 실시하는 실무훈련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 공식소식통에 의하면 베트남의 원조에 의해 65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소비재산업, 소기업 및 가내수공업, 가축사육, 수도권 녹지조성등의 여러 프로젝트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일본

일본은 공식외교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국민정부 SNC를 대상으로 1989년부터 연수생초청에 의한 인력개발협력을 재개하였으며 1991년 8월에는 수재민구호를 위해 긴급구호자금을 공여한 바 있다. 1967년부터 1979년까지의 대캄보디아협력 누계실적은 엔차관이 15.17억엔, 무상원조가 26.38억엔 기술협력이 16.63억엔에 이르렀으며, 1974년 양자간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도 WFP등 국제기구를 통해 캄보디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의 일본의 대 캄보디아 경제협력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Ⅶ-2〉 일본의 대 캄보디아 경제협력실적(1988~91)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8	1989	1990	1991
○ 양자간 ODA	0.86	1.97	0.15	0.48
- 증 여	0.86	1.97	0.15	0.48
(기술협력)	(0.86)	(0.16)	(0.15)	(0.48)
- 차 관	—	—	—	—
○ 기타 정부·민간합계	—	—	...	...
계	0.86	1.97	...	...

주 : — 은 실적없음

... 은 미확인

자료 : 해외경제협력 편람, 해외경제협력기금(일본, 1993)

한편 원조수단별로는 연수생초청의 경우 1989년 사업재개 이후 1990년도에는 보건, 의료, 행정, 인력개발, 농업분야 등에서 9명이 기술훈련을 받았으며 전문가파견 누계실적은 1985년까지 195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5년까지 16명의 청년 해외협력대(JOCV)를 파견하였으며, 7건의 개발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표 Ⅶ-3〉 분야별 기술협력 누계실적

(단위 : 명)

분야 사업	행정 · 기획	공공 · 서비스	농림 · 수산	광업 · 에너지	상업 · 관광	인력 · 개발	보건 · 의료	사회 · 복지	기타	계	
연수생초청(누계) ¹⁾	59	129	158	27	2	15	49	15	0	7	461
1990년도	2	0	1	0	0	0	1	5	0	0	9
전문가 파견(누계)	1	54	73	4	1	0	11	46	0	5	195
199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청년해외협력대(누계)	0	0	7	0	0	0	9	0	0	0	0
1990년도	0	0	0	0	0	0	0	0	0	0	0

주 : 1) 누계는 1954~1990년까지 산정

자료 : JICA 국별협력정보 Kampuchea, 국제협력사업단(일본, 1993)

라. 국제기구 및 주요선진국

UNICEF, UNHCR, FAO, WFP등 UN의 구호기구와 국제적십자는 1979년 캄보디아 난민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구호원조를 공동 실시하였는데 1979년부터 1982년 기간동안 투입된 원조총액은 714백만불에 달했다. 이 액수중 약 반은 국내의 난민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만은 국외로 피신한 난민을 위해 쓰여졌으며 품목별로는 주로 식량, 의약품, 일용품수품, 수송수단 등을 마련하는데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긴급상황이 어느정도 진정되자 행삼린 정부에 대한 원조는 갑자기 격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1983년에는 원조목표 총 16백만불중 4백만불만이 모금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United Nations Border Relief Operation(UNBRO)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였는데 미국 국무성 보고에 의하면 1985년 UNBRO의 원조총액은

35백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UNDP는 1990년 40만불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1985년 UNBRO를 통해서 12백만불, WFP에 0.8백만불, 국제적십자에 2백만불을 기부하는 등 캄보디아 구호원조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오다가 1990년 9월에 이르러서는 헝삼린 정부에 대해 UNICEF를 통해 2백만불을 제공한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1979년 1월 헝삼린 정권이 탄생한 이후 정부차원에서의 최초의 공식원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VIII. 한 · 캄보디아 협력방향

1. 교류현황

캄보디아는 1964년 2월 비공산권 국가로는 최초로 북한과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시아누크가 무려 43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970년 시아누크 망명생활이 시작된 이후에는 북한이 평양내에 사저를 제공하는 등 극진한 호의를 보여 양국관계는 김일성, 시아누크간의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짧은 공식관계이외에는 이렇다할 교류가 없었으며 무역관계도 다음 표에 예시한 것처럼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 캄보디아 민간투자로는 1992년말 현재까지 1건으로 목재부문에 약 192만불이 투자되어 있으며 구호 및 재건에 대한 원조활동으로는 1991년 긴급구호자금 3만불을 지원한 것과 1992년 동경회의 참가시 총 원조목표금액 8.8억불중 10만불지원을 약속한 것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의 일환으로 UN Volunteer프로그램에 5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표 VIII-1〉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교역현황

(단위 : 천불)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821	384	213	1,702	491
수 입	—	338	62.5	153	4.5

자료 : 외무부

〈표 VIII-2〉 한·캄보디아 교류일지(북한 포함)

1962. 3. 5 북한·캄보디아 영사관계 수립.

7.11 캄보디아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1964. 2.28 북한·캄보디아 공식외교관계 수립.

1970. 5.18 한·캄보디아 공식외교관계 수립.

8.15 대사관 설치.

1975. 4. 5 대사관 철수.

1984. 6 Son Sann, 비공식방한.

1990. 2 Son Sann, 비공식방한.

1992. 2 삼성그룹 초청으로 캄보디아 상무장관 방한.

캄보디아에서 한·캄보디아 친선 축구경기 개최.

2, 3월중 주 태국대사 캄보디아 파견.

3월중 KOTRA 사절단 방문.

2. 향후 협력방향

가. 기본방향

캄보디아의 협력여건은 사회 전분야에 있어서의 물자의 절대부족 뿐 아니라 계속된 분쟁으로 인한 계파간 갈등으로 수원을 위한 행정체제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1993년 총선 이후 시아누크를 중심으로 한 단일 정부가 탄생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의 갈등해소와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적 원조는 개발가능성이 큰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거시경제적 접근, 즉 Country Programming을 통한 단계적 구조조정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적 원조의

추세도 이미 파리회담과 동경회의를 통해 각국이 합의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캄보디아의 장기발전을 위한 재건계획(Reconstruction)과 긴급구호차원에서의 복원노력(Rehabilitation)을 구분하여 원조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동회담들을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양자간 협력보다는 국가간 조정과 조화를 통한 범국제적 차원의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망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협력방향도 국제적 추세와 캄보디아의 실정을 적절히 고려하는 정책적 사고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선 첫째로 캄보디아의 여러 현안문제와 원조프로젝트에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원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캄보디아와 아직 공식외교관계가 없고 상호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유익한 교류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선진국의 자금과 적절히 결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인적자원의 부족이며 이는 우리의 비교우위가 기술협력에 있다는 점과 일치되는 수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력개발을 목표로 한 기술협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인적교류를 통한 양국민의 이해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시간적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원조목표로서 단기에는 보건, 위생, 교육, 식량등 BHN부문의 인도적 원조와 사회간접자본의 긴급수요분야 복원, 중기에는 거시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한 행정능력강화와 산업인력의 양성, 주요산업시설의 복원및 정상화, 장기에는 범국가적 산업구조 조정 및 민간부문의 활성화, 경제재건을 위한 구체적 산업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시기적 중점협력분야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단계적협력목표의 설정은 특히 캄보디아가 경제발전에 원시적 단계에 있으며 당분간 정치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구호물품같은 소모성 원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협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피해로부터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이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적 농업국가였다는 점 등에서 발전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리한 면은 있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수출시장의 잠재력이나 자원확보,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목표도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도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교적 측면에서는 국제원조기구와의 유대강화나 친북한 국가와의 교류강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분야별 협력방안

(1) 국내외 난민수송 및 정착화 지원

현재 캄보디아 신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쟁으로 인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 정착기반을 잃은 난민들을 본국으로 수송하고 생활터전을 확보해 주는 일로서 향후 캄보디아 정국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송에 필요한 도로의 복구나 수송수단의 마련외에도 가 구별 경작지 및 주거시설 확보, 직업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난민의 정착문제는 향후 캄보디아 경제개혁정책과 맞물려 인구의 지역적 안배 및 산업별 구조조정이라는 면에서도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수단으로는 NGO나 국제기구를 통한 구호물자의 공급과 수송수단의 제공, 난민을 대상으로한 직업훈련 등이 협력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전문가파견이나 연수생 초청을 통한 이론적 교육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분야의 KYV단원 파견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난민촌의 열악한 보건환경의 개선을 위해 의료단이나 간호분야

의 KYV의 파견도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표 Ⅷ-3〉 난민수송 및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구호물자의 제공 (식량, 생필품, 의약품, 차량등)	무상자금협력 (국제기구와 연계)	－ 인도주의 원조이념 충 실
직업훈련	KYV파견(지역사회개발, 농림·축산업등)	－ 양국국민간의 사회문화 적 이해증진
의료지원	의료단 및 KYV간호·보 건분야파견	

(2) 농림·축산분야

캄보디아의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뿐아니라 벼 농사를 위주로 한다는점, 집단농장에서 가구별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소규모 영농단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 협력분야로는 우선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기술 및 품종개량, 농촌근대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관개수로보수 및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의 합리화, 농업용 장비지원, 농산물 수출진흥을 목표로한 수출작물선정 및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캄보디아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별 벌목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림사업 및 임산물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VIII-4〉 농림·축산분야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 식량자급 - 농업기술개발 - 품종개량	전문가 파견 연수생초청 KYV파견	- 식량의 안정적 확보 - 농업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효과
○ 농촌근대화 및 농가소득증대 - 농촌지도 - 관개수로 보수 및 개발 - 농산물유통구조 합 리화 - 농업용 장비지원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KYV파견 기자재공여	-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 험전수 가능 -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 및 국 제경쟁력 강화
○ 농산물 수출진흥 - 수출작물 개발 - 농축산물 가공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KYV파견 프로젝트형 사업	

(3) 산업분야

농업을 제외한 캄보디아 산업은 거의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각종시설이나 기술인력, 유통의 어려움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이해부족은 산업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단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설비나 물자지원을 통한 산업분야의 협력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의 선정이 어려우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산업개발에

대한 정책적 자문이나 기업경영 및 시장경제이론, 소규모기업개발, 공업기술의 전수를 위한 기술협력이 비교적 가시적인 협력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VIII-5〉 산업분야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산업개발정책, 기업경영 및 마케팅, 소규모 기업개 발 등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 산업부문의 엘리트 양성 — 양질의 노동력 공급
제조·생산 기술이전	연수생초청	

(4)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분야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수송·통신망의 확보, 전력·급수의 원활한 공급등이 시급한 현안과제이나 자금수요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상원조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분야중 우선 순위가 높은분야를 선정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미약한 금속광물이나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임산분야보다는 풍부한 수자원량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협력가능성이 큰 부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력발전댐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홍수의 피해를 막아온 기술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상황과 매우 근접해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겠다.

〈표 VIII-6〉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분야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수송·통신망복원 및 확보	개발조사및 EDCF와 연계	－ 경제하부구조강화
수력발전댐건설및 기술 지원	개발조사및 EDCF와 연계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 전력난 해소및 수 해 방지

(5) 교육·보건분야

캄보디아의 교육 및 보건분야는 시설·장비 뿐아니라 담당전문인력도 절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교육부문에서 기본교육제도의 재건을 통해 문자해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협력방안도 교육시설및 기자재지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 기술훈련센터의 건립 및 지원등 다각적으로 추진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보건분야에서도 병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시설, 장비 및 인력지원 이외에도 난민들의 취약한 보건환경으로인한 전염병 예방노력과 급수의 위생처리등 여러부문의 협력수요가 산재해 있다. 이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장애자의 재활교육과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도 협력수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표 VIII-7〉 교육 및 보건분야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교사양성	기자재공여 연수생초청 KYV교육분야과건	— 양질의 노동력양성 유 휴인력흡수
기술훈련센터건립 (재활교육 포함)	직업훈련지원사업 (KYV 또는 전문가 파 견연계)	
전염병퇴치 (말라리아, 결핵, 나병등)	의료단파견 KYV보건분야과건 구호사업(의약품및 의 료기구 지원)	— 인도주의 원조이념충실
의료시설, 장비및 인력 지원	기자재공여 의료단파견 KYV보건분야과건	
위생급수	전문가파견 KYV수질검사분야과건	— 급수난 해소 및 질병예방

(6) 거시경제적 안정

앞에 언급한 것처럼 캄보디아의 거시경제현황은 대외채무가 증가, 재정적자의 악화, 극심한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과 양질의 노동력 부족의 병존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자금지원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원조예산을 고려할 때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초청연수나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의 방식의 기술협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YV를 통한 인력협력도 기초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의 기관일 경우 추진 가능하며 현재 캄보디아 전반의 기술이나 교육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가능성과 수요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협력수요분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제고, 민영화추진, 통화정책, 수출진흥정책, 물가안정 및 고용정책 등으로 이러한 부문에서의 정부간 인적교류는 향후 한·캄보디아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I-8〉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대 상 분 야	협 력 수 단	기 대 효 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제고 기업의 민영화 통화정책 수출진흥정책 물가안정 및 고용증대 토지개혁정책 각종자료의 통계처리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KYV 파견	- 공공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책적 기틀마련 - 캄보디아 정부인사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다. 협력형태에 의한 단계별 Projection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협력여건의 특징은 각 분야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필요로 하며, 수요의 질 역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방향도 캄보디아의 무차별적인 수원요구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우리의 원조능력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원조형태도 시기적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 순서를 밟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인력의 파견을 통해 당장 캄보디아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긴급수요분야에 해당하는 농업, 사회간접자본, 보건,

교육분야 등에서의 기술이전을 시행하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협력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보다는 향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수립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제2단계는 국제적 공동노력을 통한 접근으로서 거시경제적 안정, 산업기반 확충,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선진공여국과 공동 시행함으로써 협력여건을 성숙시키고 캄보디아 범국가적 발전방향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간의 즉 자원개발, 업종별 개발프로젝트등을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표 VIII-9〉 단계별 협력형태 및 분야

구 분	협력형태	중점 협력분야
제1단계	전문가 파견, KYV파견등 인적교류를 통한 실질수 요조사	농업, 사회간접자본의 긴급 수요, 보건 및 기초 교육분 야 등
제2단계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 협력기관과의 공동협력 방안추진	거시경제적 안정, 산업기반 확충, 기술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3단계	양자간 협력을 통한 개 발프로젝트 발굴및 시행	자원개발, 업종별 산업발전 프로젝트, 임업관리 및 환경 보호, 민간투자 촉진등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91년도 개도국 경제협력통계, 1992. 6
- 김기태역, 동남아사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달중외,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와 정책, 법문사 199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1992. 5, 7, 9, 11; 1993. 2, 6, 7, 10).
- 대학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제97호, 1993.11.
- 동남아시아연구소편, 동남아시아 지역학 개론,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동남아정치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1992.
- 동남아지역연구회, 현대동남아의 이해, 서울프레스 1993.
- 산업연구원, 캄보디아, 1990.
- 신상기, 캄보디아의 정치향방과 경제개발동향, 해외건설협회
- 외무부, 각국편람, 1992.
- 한국수출입은행, 주간해외투자정보 제767호 “캄보디아의 정치·경제동향과 국제협력지원방안”, 1992.11.14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국별편람, 1993.
- Ablin David & Hood Marlowe, The Cambodian Agony, M.E. Sharpe, Inc. 1987.
- Asian Development Bank외, Cambodia : Socioa-Economic Situation and Immediate Needs, 1992. 5.
- Asian Development Bank, ADB Quarterly Review Issue No. 4, 1993.
- Contemporary Southeast Asia(VOL14 NO3 1992.12, VOL14 NO3 1993. 9), Institute of Southeast Asia.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 Indochina : Vietnam,

- Laos & Cambodia(1992. No.1, No.2, No. 4 ; 1993. No.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Profile 1992~93.
 - _____, EIU World Outlook 1993.
 - The Europa World Year Book 1992. VOL 1.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kong(1992. 2. 20, 4. 16, 6. 11 ; 1993. 4. 8, 4. 29, 6. 10, 6. 24).
 - Southeast Asian Affairs 1991, Institute of Southeast Asi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일본), 국별협력정보 Kampuchea, 1993.
 - Library of Congress, Cambodia : A Country Study, 1990.
 -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1992.
 - Vichery Michael, Kampuchea :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llen & Urwin 1986.
 - Wright Martin, Cambodia : A Matter of Survival, Longman 1989.

